

마을
에서
만나
는
사이

Contents

강북구마을자치센터 3

-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소개 4
- 2022 마을지원사업 돌아보기 6

마을살이 이야기 9

- 이웃 만들기 10
- 공동체모임 활성화 38
- 마을특화활동 지원 50
- 마을문제 해결 72
- 마을지원 활동가 88
- 강북 마을기자단 89

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2022, 2021 91



강북구마을자치센터

-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소개
- 2022 마을지원사업 돌아보기

♥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소개

강북구마을자치센터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01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을에서 이웃들과 연대하며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동과 호혜의 과정을 응원합니다.

02 마을의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을 돕습니다.

주민 스스로 필요를 알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이러한 마을활동 경험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하여 다른 주민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3 마을공동체의 경험을 동력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합니다.

모임을 넘어 동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 계획을 세우고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실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만듭니다.

♥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이웃이 모여 다양한 마을살이를 꿈꿉니다.

▶ 마을사업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및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모임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춘 상담, 컨설팅

▶ 마을공동체 교육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마을리더와 마을활동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개발, 운영합니다.

- + 강북구마을자치학교
- + 주민리더교육
- + 열린마을강좌 지원



▶ 동·의제 마을넷지원

동·권역별 모임을 통해 동단위에서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동네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의제 중심의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 + 동별·의제별 마을공론장
- + 강북구 마을주간, 마을자치 이음축제

▶ 홍보

센터 및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활동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우리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 마을소식 '복새통' 제작 및 발송
- + 홈페이지 www.gbmaja.org/
- + 카카오톡 채널  강북구마을자치센터 

♥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동네에서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의 필요와 문제를 나누며 함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관계망입니다. 지역의 관계망 회복과 주민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강북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 2022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유형

이웃 만들기	소규모 주민모임을 통한 이웃관계망 형성을 지원합니다.
공동체모임 활성화	이웃관계망을 기반으로 모임구성원들의 관심 의제를 지역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시도해보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을특화활동 지원	공동체 공간·골목을 연계하거나 의제 중심의 다양한 주민참여활동을 통한 주민커뮤니티를 활성화합니다,
마을문제 해결	제안형 : 3개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가 연합하여 활동하는 유형으로, 협업을 통해 강북구 지역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마을공동체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합니다. 기획형 : 청년 개인들의 다양한 생활 속 수다를 통해 강북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청년연관 문제를 찾고,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시도합니다.

※ 지원사업의 유형은 해당년도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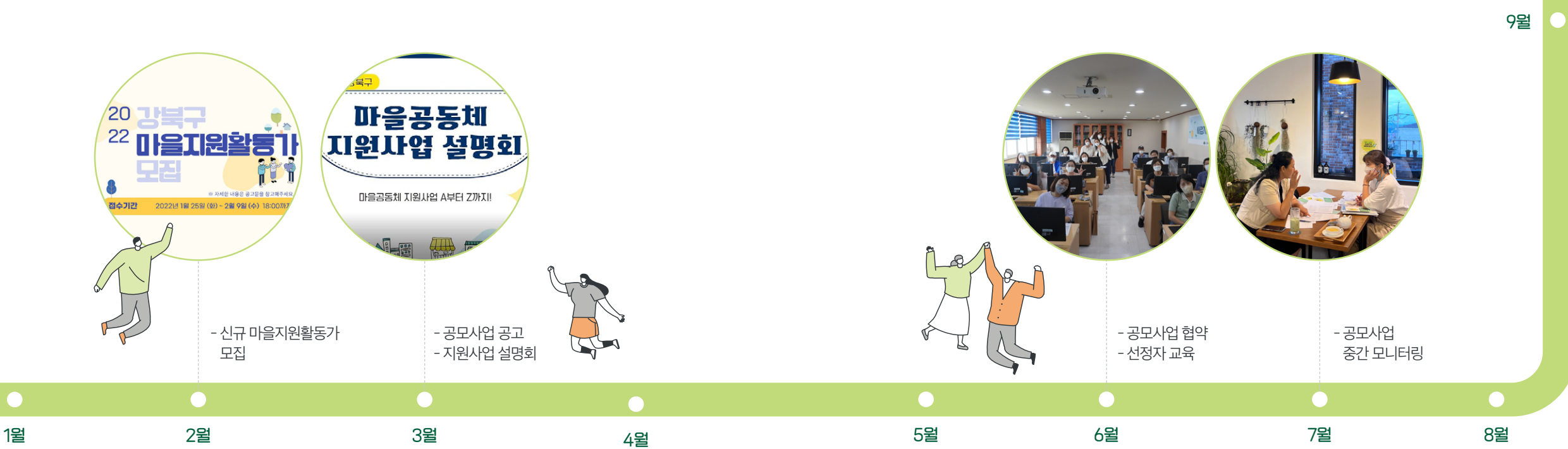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좀 더 알고 싶다면?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상담으로 더 쉽게 시작하세요. 새로운 주민모임 형성,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기획과 실행, 우리동네 마을살이에 필요한 정보를 마을지원활동가가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 방법

찾아가는 마을상담과 컨설팅	카카오톡 채널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추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전반(개념, 사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서류 작성방법 +우리동네 마을살이에 필요한 정보 등	+강북구 마을공동체 1:1상담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 알림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및 동네 소식 등

♥ 2022 마을사업지원 돌아보기





마을살이 이야기

- 이웃 만들기
- 공동체모임 활성화
- 마을특화활동 지원
- 마을문제 해결
- 마을지원 활동가
- 강북 마을기자단



이웃 만들기

1 기통찬 맘 더하기

재능기부를 통해 소통하는 찬란한 육아맘 더하기!
재능기부를 통한 육아맘들의 행복한 동행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삼각산동	기통찬 맘 더하기는 코로나 시대 독박 육아로 지친 삼각산동 내 엄마들의 육아 우울증 극복을 위한 힐링 모임을 만들고자, 삼각산동 맘카페를 통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육아맘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영상치료, 요리, 손뜨개) 기부를 통해 소통하며 엄마들의 힐링과 즐겁게 육아할 수 있는 모임으로 꾸려가고자 합니다.	김세리 김나은 김혜미

기통찬 맘들의 기똥찬 이웃만들기!

김유진 | 2022 마을지원활동가

기통찬 맘 더하기 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내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모인 이웃만들기 모임이다. 첫 만남은 놀랍게도 공고문에 흥미를 느낀 한 구성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파트 커뮤니티 단톡방에 이웃만들기 사업을 공유하여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모집시대!' 해서 만나게 된 귀한 사람들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잘 될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자녀들 학교와 생활반경이 같아 이웃만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의 공통점을 새롭게 발견하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고 한다.

습한 더위와 함께 비바람, 태풍이 왔던 어느 날, 이름에서도 살짜쿵 느껴지는 당당한 맘들을 만나러 발걸음을 옮겼다. 기통찬 맘들이 MBTI 검사를 통해 각자의 기질과 성격을 알아보는 재능기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20년도 더 이전에 나 역시 흥미를 느끼며 MBTI 검사를 했었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의 기질로 모였다 흠어졌다를 반복하며 재밌게 토론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우산을 쓰고 찾아가 작은 카페에서는 인사도 건네기 어려울 만큼 집중된 채로 진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다양한 유형의 장단점을 적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고 그 내용을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지난 날에 했던 사건들을 떠올리며 마음껏 웃기도 하였다. "아하!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나와 기질이 다른 상대방의 행동과 반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MBTI 검사를 진행하는 재능맘의 설명 또한 구체적이고 포용적이어서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거예요" 라는 다정한 설명으로 각자의 입장을 잘 풀어주었다. 멤버들 간에 더 많은 이해의 폭이 쌓이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실제 경험담을 통해 각각 기질에 따른 반응을 알아보는 시간도 있었다. 멤버 중 한 명이 운전이 미숙해 보이는 상대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생각보다 처리 비용이 많이 나왔다. 백 퍼센트 상대방의 잘못이라 보험 처리를 했는데 금액이 컸다. 마음이 불편해 위로의 문자라도 드려야 하나 고민이 자꾸 되었다. 이 화두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무척 재미있었다. 사고가 한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어떤 시기를 우리 모두가 겪을 터인데 그 때가 되면 운전은 안 하는 것이 맞다, 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된다, 나도 문자를 보내었을 것 같다, 등등. 자신의 기질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 대한 생각과 표현하는 언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다. 그리고 서로 조언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참여하신 분들은 MBTI 검사 처음인데 저랑 너무 맞게 나왔고 내 평소시의 느낌이나 생각의 흐름이랑 똑같아서 놀랍고 재밌었어요", "새로운 분들이 참여해서 좋았어요. 뜻깊고 재밌었고, 감사님 감사해요." 라는 인사를 남겨주기도 했다.

다른 참여자도 "이웃의 소개로 처음 이웃만들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MBTI 검사는 어떤걸까 궁금했었는데 정확한 검사를 통해 나의 행동 뿐 아니라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내 아이의 성향까지 짐작해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소감을 전해주었다. 또 "강의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높았고 긴 시간이 걸려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강의와 나눔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오래전 했을 때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저에 대한 부족한 면을 돌아보며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모임에 오신 분들이 오늘 첫 만남인 분들이 많아서 한 참가자가 건넨 말에 모두 웃음을 터트렸는데.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 보기도 전에 각자의 성격을 먼저 알게 되었어요. ㅎㅎㅎ..”

이런 신박한 관계의 시작 새롭지 않은가?

우리 모임이 너무나 좋다는 기뻐찬 맘들. 모임의 이야기 뿐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즐겁게 무언가를 시작해볼 수 있는 용기가 날마다 조금씩 쌓여가는 듯 하다. 기뻐찬 맘은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마을자치센터에서 운영한 ‘미리캔버스를 활용한 마을활동 홍보 스킵업’ 교육에 참여하여 오늘 강의 웹자보도 척척 만들어 내고, 다음 번 뜨개모임의 웹자보 디자인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동네의 자원순환가게를 방문하여 뜨개에 사용될 삼베실을 구입할 계획도 갖고 있었다. 다른 팀의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함께 살아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력에도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응원의 박수가 저절로 나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힘찬 발걸음과 수다스러움이 삼각산동에 널리 울려 퍼질 것 같다.

아이유의 버전으로 파이팅!!을 외쳐본다. 기뻐찬맘 파이팅!!!



이웃 만들기

2 꿈링턴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육아선배 육아후배 함께 키워요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송중동	육아를 하는 육아 선배와 가정의 만나 육아 선배는 육아의 경험과 지식을 전하고, 육아 후배는 첫 육아로 오는 고민 등을 나누며 이웃 간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대현 김영해 정지현

친한 이웃을 만들고 싶은 송중동 젊은 아빠, 정대현

김혜신 | 2022 강북 마을기자단

‘마을공동체는 윤희유입니다.’

8월 16일, '마을꿈터'에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웃만들기 대표제안자인 송중동 정대현님을 만났다. 마을공동체 모임, 특히나 육아모임에 남자가 대표제안자인 경우가 드문 상황에서 모임과 대표제안자에 대한 궁금함, 같은 동네사람이라는 개인적 관심까지 더해져 설레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혜신 모임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대현 우리 부부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마침 제가 관심이 가던 밴드활동이 아파트 온라인카페에 신규회원을 모집하면서 시작되었죠. 가입 후 만나보니 밴드 회원들이 저희 보다 선배 분들이어서 육아에 대한 이야기, 장난감이나 옷 물려주기 활동을 함께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구정홍 보지에서(의외로 정보가 참 많더라고요) 마을공동체라는 용어를 접했고, 아내가 밴드 회원분들이랑 해보자고 해서 사업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신 모임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정대현 우리 모임은 총 네 가족, 13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쌍의 부부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요. 가끔씩 모여서 저희 집에서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곤 했었는데요,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는 '함께 육아를 하자', '아파트주민과도 친해지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6월에는 아파트 내 나무심기를 진행해서 아파트 가꾸기 활동을 하고,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크는 경험을 나누었고요. 7월에는 식사하면서 육아 나눔, 사업진행계획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8월에는 '고래실마을'에 탐방을 가서 우리 모임의 미래를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러 합니다. 9월에는 송편 빚기를 할건데, 아내가 어린이집 다니는 엄마들 몇 명을 초대해서 새로운 이웃들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10월에는 마무리로 식사하면서 지난 활동을 돌아 보고, 내년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김혜신 대표제안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것은 없으세요?

정대현 처음에 계획서를 쓸 때 예산을 어떻게 써야하는지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실은 2021년에도 담배공초 줍기 활동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뭘 써야 할지 몰라 집계를 개당 10만 원짜리로 해서.. 하하. 현재 어려운 것은 시간 맞추기입니다. 다들 직장 다니고, 집안일들도 있는지라.

탐방도 원래는 7월이었는데, 사정상 8월로 연기되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이웃을 늘려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요. 프로그램할 때 모집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을 더 회원으로 모아야 하는지. 올해는 아는 사람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고민될 것 같아요, 이후에는.

김혜신 앞으로 모임이 동네에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정대현 솔직히 아직은 저희 아파트 안에서 '이웃끼리 친했으면 좋겠다.', '친한 이웃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놀이터나 경로당 등이 놀이공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입주자회의 대표도 맡고 있거든요. 원주민이 60%, 새로운 주민이 40% 정도이고, 연령대도 5-60대의 중간연령층이 없고, 어르신과 젊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주민분들은 새로운 변화를 원하시기 보다는 지금에 만족하시고, 새로운 주민들은 초등학교 전까지는 사정상 이곳에 있지만 떠날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오패산', '북서울꿈의숲'이 너무 좋은데 아이들 교육 등을 생각하면 송중동에 뭐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말고는 말이죠. 말하다보니, 동네에 대한 생각도 하고, 동네가 더 살기 좋게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여튼, 현재는 이웃끼리 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김혜신 말씀 나누다 보니, 사람 좋아하는 친한 이웃 만들기 전도사님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정대현 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심사 때도 심사위원들이 물어봤었어요. 저는 '윤희유'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이웃들과 밥을 먹고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사업을 시작하게되니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게 되고, 나누는 이야기도 마을, 아파트, 공동육아 같은 이야기들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를 단단하게 해 주는 '윤희유'가 마을공동체 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송중동 주민자치회 소개와 회원 신청서를 드렸다. 바깥 일이 많아서 아내한테 혼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도 아파트 카페에도 올리겠다면서 신청서 열 장을 챙겨간다. 마을꿈터 공간에 대한 궁금함으로 한참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묻다가 헤어졌다. 2019년에 이사 온 새내기 송중동 주민이자 마을공동체에 첫 발을 댄 사업지기이지만, 오래 된 주민인 듯 송중동, 아파트, 이웃을 좋아한다. 아니, 스며들고 싶어 한다. 친한 이웃 만들고픈 젊은 사업지기 정대현은 주인이자, 주민이다.





이웃 만들기

3 발효장 만들기

이웃과 함께하는 발효 장만들기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삼각산동	기후위기와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유치원 엄마들의 친목 모임으로 시작하여 먹거리 뿐만 아니라 발효장, 막걸리 만들기를 함께 배우고 나누며 얻었던 든든함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 문화를 새로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활동을 합니다.	박인례 박혜영 김지현

맛과 더불어 이웃을 만나는 즐거움

김유진 | 2022 마을지원활동가

오늘은 인수동 시장골목 안에 있는 사랑방에서 첫 번째 발효장 모임을 하는 날이다.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사업으로 모인 네 명은 몇 년 전 졸업한 유치원 동기 엄마들이다. 한 달에 한 번 반찬을 집에서 만들어 가야하는 유치원이었는데 식재료는 친환경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는 곳이었다. 환경에 관심이 있던 유치원에서 먹거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게 되었고, 유치원에서의 먹거리 뿐 아니라 내 가정에서의 먹거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재료 선택에 대한 기준도 조금씩 바뀌고 재료가 주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엄마들의 이런 관심은 꾸준히 이어진 소소한 만남을 통해 공유되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관심사로 넓혀지고 확장 되었다. 아이들의 기운과 흥미를 느끼는 것들, 학교 생활과 일상 생활을 잘 알고 지내는 벗이 되었다. 이웃만들기 사업 참여는 공고문을 읽은 누군가의 제안으로 진행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소스 만들기,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 주스 만들기, 반찬 만들기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채식과 발효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발효장 만들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발효장은 세 가지 전통 음식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에서 시작하여 딱딱 고추장 만들기, 맛간장 만들기, 보리막장 만들기의 3단으로 구성되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추장 만들기는 15분 정도의 시간과 품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정말 신비로와 기대가 담뱃 되었다.

현재 두 가지 활동은 진행이 되었고 이제 보리막장만 남아 있다. 구수한 보리밥을 넣어 만든 막장도 기대가 된다.

발효장의 첫 번째 활동으로 맛간장을 만든다고 하여, 나도 구경하러 가 보았다.

맛간장은 사전 작업이 필요했다. 모임 전날 운영진 몇 명이 모여 간장과 여러 건강한 식재료를 넣고 1차 끓여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간장을 달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다양한 재료에 양을 측정하여 몇 시간 푹 달인 후 그것을 식혀 다시 큰 병에 옮겨 담았다. 시간도 많이 들고 정성도 한껏 드는 달이기 시간이었지만 재료의 양을 계산하고 시간을 어렵잡으며 함께 하는 모습이 무척 즐거워보였다.

두둥~~ 드디어 이웃만들기 모임 시간!

맛간장의 맛과 더불어 이웃들을 만나기 위해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달콤한 간장 냄새가 가득했다. 밝은 얼굴의 모임원들이 서로서로 정담게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발효장만들기 첫 모임에 모인 사람들도, 간장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각자의 관심사가 공유되며 왁자한 분위기가 삼삼오오 이어졌다.





이웃 만들기

4 번동사랑

번동 업! 이웃과 함께 소통도, 건강도, 마을 사랑도 업!업!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번동	이웃들과 함께 마을을 가꾸고, 이웃과 건강 체조 등을 통해 코로나로 줄어든 새로운 이웃과의 소통도 확대하고,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남동균 한정우 서용숙

과일, 표고, 깻잎, 고추 등 깊은 맛을 내는 재료를 추가로 넣어 푹 끓이고 온기가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 ‘끓이고 남은 깻잎과 고추가 너무 아까운데, 우리 걸러낸 건강한 재료로 밥먹자.’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왁자지껄 시끌벅적. 바람 잘 불어오는 시골 어느 마당에 큰 곰 솥을 걸어 놓고 전이며 걸절이를 무치며 밥을 나누는 모습이 겹쳐보였다. 즉석밥에 달걀후라이가 얹히고, 간장을 달이고 남은 부산물인 고추, 깻잎 등을 척척 얹어, 정말 맛있는 식사 시간이 이어졌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마치 오랜 동네 친구와의 만남처럼 재밌는 대화의 장이 펼쳐졌다. 이후 설거지는 서로 도와 뒷정리도 반짝반짝 후다닥 마무리 되었고, 작은 유리병에 이제 막 만든 간장을 담아 나눔이 이어졌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간장 한 방울도 아까워하며 싹싹 긁어 각종 요리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을 전했다. 사랑방의 공간을 내어주시는 인수도시재생센터에도 한 병, 노인 밥상을 이어가는 나눔 모임에도 한 병. 가슴에 소중히 품고, 잘 전달하겠다고 한다. 아, 정말 귀한 나눔이다.

오늘 함께 한 소감도 나누고 다음 활동 계획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 발효장은 고추장을 쉽게 만들어 보는 활동이에요.” 하니 박수가 이어졌다. 고추장을 집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쉽고 만드는 시간도 짧게 걸려 ‘뚝딱 고추장 만들기’라는 설명을 듣자 “나도 할 수 있나요?” 라는 물음과 “꼭 참석해야지.” 하는 작은 다짐이 이어졌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사진도 찍고 여러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재료를 알고 먹으니 안심하며 먹게 된다.”, “알아도 혼자서 할 것 같지 않는데 같이 해서 좋았다.”, “집에 가서 할건가? 생각해보면 아니다. 만나서 같이 하는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 환영하고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다. 나도 간장으로 시작!”, “재료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혼자서는 못하는데 같이 하니 좋다.”, “마을 사업으로만 할 게 아니라 모임이 이뤄지면 참여하겠다.”, “나와 같은 이웃을 만나 기분이 좋다.”, “맛간장을 사는데 아니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드는 과정이 재밌고 유익하고 새로웠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활동에 처음 참여하신 분이 강조하며 이야기했다. “진정한 이웃만들기가 지금 이 공간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운 날씨에 활동이 모두 끝나고 발효장만들기 구성원들에게 소감을 물으니, “다들 너무 좋아하시니 저희도 좋아요.”, “다음엔 더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서로 모여 발효장에 관한 다양한 소모임이 시시각각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

어려운 점은 없냐는 질문에는 “크게 없어요. 너무 보람되네요”, “기뻐요”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이어졌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웃만들기를 잘 마무리하고 더 많은 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본다고 한다. 음식을 안 해보신 분, 혼자 사시는 일인 가족, 청소년, 노인분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스스로 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건강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것들이 모이면 마을공동체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바람도 엿어주셨다.

달콤한 간장 냄새와 함께 한 뚝딱 발효장 만들기와의 만남은 이렇게 진한 여운을 남기며 앞으로의 더 큰 활동도 기대하게 되는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덕(德) 있는 사람들의 모임

박지아 | 2022 강북 마을기자단

“깨끗한 거리에는 쓰레기를 버리기가 어렵다.”

쏟아붓던 비가 그치고 빛 좋은 맑은 날씨에 강북구 마을공동체 ‘번동사랑’ 모임의 사업지기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박지아 ‘번동사랑’ 모임을 소개해 주세요.

번동사랑 ‘번동사랑’은 이웃과 함께 깨끗한 골목 만들기, 자연 가꾸기를 하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입니다.
번2동 지역에서 모임회원과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마을을 가꾸고 있습니다.

박지아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모임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번동사랑 골목 페인트 칠, 유희지 화단 만들기, 벽화 그리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분리수거 지키기 홍보를 201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꽃밭 가꾸기를 하여 풀 뽑는 법과 꽃 이름을 알려 주는 활동을 함께 했어요.



박지아 모임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변동사랑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꽃을 심고, 물을 주고, 풀을 뽑는 일을 통해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골목이 밝아지고 깨끗해지면서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고 주민 스스로 환경 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박지아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텐데, 어떤 것이 있었나요?

변동사랑 2019년에 10명의 회원이 모여 마을공동체 '변동사랑'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전보다 80% 정도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고, 모임 회원 및 함께하는 이웃도 늘었는데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모임인원이 줄었습니다. 회원들이 중장년이다 보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의욕있고 리더십 있는 젊은 분들도 우리 모임에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변동사랑' 회원이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마을'이란 어떤 곳일까요?

변동사랑 이사 오고 싶은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마을이 쾌적하고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으면 이사 오고 싶은 곳이 됩니다.

박지아 '변동사랑'의 꿈꾸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변동사랑 이웃과 소통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이사오고 싶은 마을을 가꾸가는 변동사랑 모임을 응원한다.



이웃 만들기

5 손꽃이 피는 마을

이야기 풀무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변동	코다(CODA)인 아이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코다가 아닌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친구들이 수어에 관심을 갖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모습을 이해하는 활동을 엄마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방문체험, 수어교육을 통해 어울리며 소통하는 활동을 합니다.	남윤정 김인옥 양혜원

손꽃이 피는 마을에선

박영진 | 2022 마을지원활동가

9월 17일 강북구 변동 지역에서 이웃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손꽃이 피는 마을' 모임에서는 목공 체험을 위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들이 모였다. 토요일 오후 2시. 목예원 공방에 도착한 가족들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빠들은 아빠들대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서 이번 모임이 처음이 아닌 듯 보였다.

손꽃이 피는 마을 모임은 코다(Child Of Deaf Adult :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인 아이들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몇 년 전에 참여했던 마을공동체 경험을 토대로, 남윤정님이 엄마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팀이다. 공모사업 지원을 준비하며 사전 상담을 위해 만나게 되었을 때 "잘 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른 가족들과 어울려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이다 싶었다.

그동안 모임 활동은 어떠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농인협회에서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이해 교육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어 수업도 받으면서 손으로 말을 하는 보이는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답하셨다.



아이들은 “서대문 형무소에도 다녀왔어요. 치킨도 먹고 친구들이랑 역사 이야기도 했어요.”라고 얘기해 주었다. 함께하는 엄마들을 동네이모라고 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기억에 남는 점은 “이쁜 아이들, 좋은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여서 마을의 이웃들을 잘 모르고 함께 어울릴 기회가 없었는데,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새로운 이웃들을 알게 되었고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라는 말씀에 마을공동체의 목적이 실현되는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뿌듯했다. 마을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더 확산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공 수업이 이뤄지는 틈틈이 의자를 만들고 있는 가족들을 보았다. 아빠의 출장으로 엄마와 두 아들이 함께 한 가족은 앞에서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얘기보다는 형과 놀고 싶어 하는 동생 때문에 엄마가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손에 킁스를 했지만 한쪽 손으로라도 아빠를 도와주려는 딸의 모습도 보였다. 의자에 못을 박기 위해 드릴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들의 손을 아빠가 붙잡아 주면서 드드드드 진동의 떨림을 온 몸으로 느끼는 부자의 모습도 보였다.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을까 궁금했다. “문화재 탐방시 전문적인 인솔자가 있으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더 충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 2회 이상 진행해야하는 일정으로 구성원들이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조율이 어렵긴 했어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또 다른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아무래도 수어를 배운다고 해도 짧은 시간이라 아직 의사소통할 때 어려운 점이 있고, 수어통역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부가 농인인 가족이 있어 수어통역사가 오셔서 의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오늘처럼 수어통역사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여러 활동에서도 수어통역이 필요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덧 네 개의 다리가 세워지고 앉을 수 있는 좌판을 합체하는 작업팀도 있고 어느 가족은 좌판에 가족들의 이름이나 별칭을 새기는 버닝우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결을 매끈하게 하는 사포 작업만 이 남은 듯하다.

다음 질문도 해봐야겠다. 마을 안에서 ‘손꽃이 피는 마을’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현재 모임이 정말 좋아서 내년에도 함께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다른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의 부모들이 서로 협력하고, 아이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모임이었으면 합니다.” 모임을 통해 친분도 쌓고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진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싶었다. 중간 컨설팅 때 언제 보람을 느꼈는지 물었었다. 양주 안전교육관에 방문해서 체험을 통해 교육을 받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며 고맙다라는 말을 수어로 인사해줬을 때라고 했던 윤정님의 대답이 기억이 난다. ‘손꽃이 피는 마을’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가족이 소통하고, 지역내에서 화합해 가는 모습이 보였다.

마지막 ‘손꽃이 피는 마을’ 모임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에 대해 질문을 드렸다. “마을 안에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의 사람들이 어울리며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멋진 말이다.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간의 소통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들 간의 소통이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질에 대한 거부감 없는 마음, 비판적 사고가 아닌 수용적 사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 모임이 유지가 되고 함께할 수 있는 모임인 것 같다. 앞으로 남은 사업은 친목 모임 목적으로 이모들끼리 건강한 생활 이야기를 서로 들려주고 나누며, 동네 분의 재능기부로 천연생활용품 만들기 도 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사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남은 기간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평가 컨설팅 때 뵙기로 했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간 과자와 음료를 주고, 샌드위치를 받아왔다. 하늘도 높고 바람도 살랑이는 날, 들뜬 마음으로 소풍을 함께한 기분이었다.





이웃 만들기

6 용출비

우리동네 일회용품 줄이기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미아동	코로나로 인해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보고 환경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이웃들이 모여 나부터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플라스틱을 이용한 생물키우기, 고체 샴푸바와 비누바 등을 만들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형성철 홍광수 최영이

지구 건강을 위한 작은 한 걸음

김유진 | 2022 마을자원활동가

가을이 막 오려는 즈음에 강북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머와 에너지가 넘치는 팀 용출비를 만났다.

모임 소개를 부탁드렸다. “우리 용출비는요, 사회적으로 일상화된 일회용 용기 사용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일회용 용기를 너무 쉽게 내다 버리는데 이걸 다시 활용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일 손쉽고 깨끗하게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이스커피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잖아요. 너무 많이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와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생명을 연장하여 다시 활용할 수 없을까에서 시작된 고민을 나누면서 만들어진 모임이에요.”

청소년과 노년층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이 이제 환경문제에도 마음을 써서 깨끗한 강북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하셨다. 회기도 자주하시고 밥도 자주 먹으면서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고, 누구라도 만나면 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모임이다. 모임을 만든 계기는 미아동 주민자치회에서 환경분과 위원들과 함께 하면서 시작되어, 분과장님을 중심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고 한다. 미래 세대에게서 빌려 쓴 지구가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청소년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모아진 것이다.

오늘 활동은 아이스커피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용기나 안 쓰는 유리병을 재사용하여 수생식물과 작은 물고기도 같이 키우는 활동을 하기로 한 날이다. “이런 활동이 일회용 쓰레기가 없어지는데 커다란 효과는 없겠지만, 이 작은 행동이 널리널리 퍼져나가서 오염된 지구를 건강하게 되살리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활동은 지구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정신을 살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활동을 집중해서 함께 하다보면 저절로 정신이 맑아져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서로의 유리병에 다양한 코디도 해 주면서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나에게도 행복이 전염되는 것 같았다. 유리병을 꾸미는 동안 물고기가 새끼를 낳아서 순식간에 병 안을 헤엄치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던 모습도 기억에 남는다. 다양한 꾸밈 활동을 서로 자랑하고 사진도 찍으며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용출비 활동의 어려운 점을 물어보니, 사실상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사람의 일정을 맞추기도 어렵다는 상황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하루 활동하면 차비, 기름값, 식사값 등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용출비 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함께 하는 시간을 맞추고 품을 내어주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번 가을에 구청에서 용출비 활동을 아시고 산악문화제 행사에 참여를 제안하는 섭외연락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자부심도 더 높아지고 멤버들의 기운이 돋았다고 하니,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드는 어려움 보다 기쁨이 더 커 보이는 것 같다.





마을 안에서 용출비가 하고 싶은 모임은 어떤 모임인지 물어보았다.

“생각해보니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것들이 무척 많은데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또, 모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구성원들이 알고 있고 그 걸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한다. 역시 중장년 용출비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길게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라며 더 나아가서 생활화하고 싶다는 아무진 포부도 알려주었다.

마을에서의 용출비 역할과 이후의 활동 계획을 물어보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바라고 모임 구성원을 더 모집해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싶어요.”

용출비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옛날 마을 앞 나무 아래 평상의 대화처럼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음식도 만들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함께 힘을 모으고 보태던 지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품앗이를 같이 하며 육아도 함께 했던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왔던 다정한 마을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은거라 생각한다. 강북구에서 용출비 모임이 그런 든든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은근히 해본다.

활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자신이 변한 점이나 소감을 물어보았다.

“생활속에서 일회용품 접했을 때 이걸 어떻게 쓸까 생각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해요. 무엇이든 재사용하려고 실천하게 되고, 심지어는 스트로우도 재사용하게 되고. 얼마전까지의 나에게는 낯선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당연한 모습이 되었어요.”

“나도 똑같아요.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냄비받침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활용법을 알려주기도 해요.”

“삼푸바와 설거지바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널리 보급하고 싶어요. 환경도 살리고 내 건강도 챙기면서. 단점도 있는데 쓰기는 약간 불편하답니다. 하지만 환경을 따지고 건강을 따지면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어요.”

“삼푸바와 설거지바를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도 아끼고 환경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삼푸바와 설거지바를 주변에 많이 보급했으면 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절약도 되어 일석이조라 생각하고 있어요.”

“활동으로 이웃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나와 다른 사람의 삶도 알게 되어 좋아요. 환경에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겼고, 나 하나 안쓰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과 관념과 가치관이 변했다. 대단한 일에 동참하는 것 같은 뿌듯함이 있어요.”

오늘 모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용출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환경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임이면 서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 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전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면,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는 방법도 알고 싶다면 공부하고 싶은 범위와 실천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셨다.

나도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내가 지닌 한 힘도 보태고 싶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는 힘은 무척 큰 영향이 있음을 알고 있다. 강북 지역을 사랑하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건강하고 따스한 마을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용출비 활동이 지역 내에서 조용히 힘있게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게 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고 있는 우리 땅과 공기, 맑은 하늘과 깨끗한 물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은 속깊은 활동들. 정이 넘치는 마을을 꿈꾸는 언니, 오빠들! 내년엔 더 힘찬 발걸음, 응원해요!!





이웃 만들기

7 육아빠

육아하는 아빠들과 이웃되기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인수동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휴원으로 인한 독박육아, 고립육아 등 가정 내 육아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이전보다 육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이 늘어났습니다.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과 육아노하우 공유, 육아폼앗이를 하며 이웃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강민혁 허 의 고종구

육아하는 아빠들과 이웃되기

이다현 | 2022 강북 마을기자단

“육아하는 아빠들이 많아질 때 마을도 달라진다.”

처서를 앞두고 8월의 불볕더위가 수그러질 때쯤, 강북구 마을공동체 모임 ‘육아빠’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립 재활원을 지나 고목이 우거진 숲속 카페에서 ‘육아빠’의 두 대표제안자, 강민혁님과 고종구님을 만났다. 실내의 소음 때문에 인터뷰 녹음이 어려워지자, 자연스럽게 테라스로 이끄는 이들의 배려에서 긴장은 녹아내렸다. 또 다른 대표제안자 허의님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터뷰가 끝날 때쯤 도착했다.

이다현 안녕하세요. 우선 육아빠 모임을 소개해주세요.

강민혁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빠 모임의 대표제안자 강민혁입니다. 육아빠는 ‘육아하는 아빠들’이란 뜻이고, 마을에서 모임을 가지며 결성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분들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마을에서도 육아를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마을공동체에 올라온 사업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종구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제안자 고종구입니다. 처음에 민혁 씨가 이 사업을 제안 했을 때 걱정도 있었어요.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으니깐요. 육아를 매개로 소통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이다현 육아빠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강민혁 아무래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니 만나는 게 어려웠죠.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어요.

고종구 우선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만약 만나더라도 어린 아이들은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기 힘들잖아요. 저희 아이는 지금 18개월인데 답답해서 마스크를 자주 벗으려고 하죠. 코로나의 장기간 유행이 만남을 지속하지 못하는 요인이죠.

이다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강민혁 기획단계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에 남아요. 저희가 교회에서 만나 이 모임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아빠들이 육아 폼앗이를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마을에서도 모이자고 한 거죠.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자’는 마음으로요.

고종구 저는 육아빠 첫모임이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이 어리고 코로나로 다른 데를 갈 수 없었으니까 저희 집에서 만났거든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다현 마을 안에서 육아빠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강민혁 저희가 ‘육아하는 아빠들과 이웃되기’라고 해서 육아빠인데, 마을 안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모임이 되길 원해요. 현대사회는 빠르게 흐르고 사람들은 점점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이웃과의 유대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 지점을 저희가 돕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마을의 유대를 연결하고 회복하는 역할이요.

고종구 저 역시 민혁 씨와 같은 생각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나의 안부를 묻는 이웃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이다현 ‘육아빠’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강민혁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처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마을공동체가 되었으면 해요.

고종구 고독한 사람이 없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아를 매개로 마을 구석구석 이웃들이 연결되는 육아공동체. 육아빠가 꼭 만들고 싶어요.

이다현 ‘아빠의 육아’가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강민혁 우선 몸으로 잘 놀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어릴 때 아빠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춘기에 데면데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빠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종구 아빠의 육아는 아무래도 힘이지요. 저는 아이가 18개월인데, 아이가 백일이 될 때까지 저랑 둘이 잠을 잤어요. 중간에 아이가 모유를 찾으면 엄마에게 데려가고요. 어느 날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찡했죠. 바람이 있다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라는 말보다 ‘아빠’라는 말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다현 아이와 공감대를 만드는 자신만의 육아법이나 놀이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강민혁 아이와 동등하게,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놀아줘요. 집 앞에 모래놀이터가 있는데 저도 똑같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그렇게 아이와 친구처럼 놀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아이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육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고종구 주로 제가 집안일을 하고 아내가 육아를 하는데요. 주말에는 아내가 먹고 싶은 요리를 해줍니다. 오늘은 닭죽을 해놓고 나왔거든요. 아이와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요리하는 저를 바라볼 때, 전 그때가 행복하고 뿌듯해요.

이다현 육아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러 이유로 주저하는 아빠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강민혁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능동적인 육아를 할 때 가족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부부가 육아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해야죠. 그럼에도 육아에 자신이 없다면 주변의 육아하는 아빠들이나 이웃들과 모여서 육아를 매개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고종구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일이 몰리면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봐라, 이런 나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도 굉장히 많고요. 그걸 잊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이들과 보낼 소중한 주말을 내게 선뜻 내어준 아빠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림책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육아빠 대표제안자 세 분에게 전달했다. 그림책을 담은 ‘행복’이라는 마법이, 주말 저녁 그들의 가정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 만들기

8 장미북클럽

책과 문화활동으로 성장하는 엄마 모임!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번2동	<p>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휴원으로 인한 독박육아, 고립육아 등 가정 내 육아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이전보다 육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이 늘어났습니다.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과 경력단절을 겪고, 코로나로 가정돌봄이 늘어나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여성들이 모임을 통해 소통과 위로의 시간을 갖고자 모였습니다.</p> <p>서로를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독서와 예술문화 활동을 통한 배움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새로운 사고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활동을 합니다. 육아노하우 공유, 육아품앗이를 하며 이웃만들기 활동을 합니다.</p>	<p>이수경 박은영 윤소영</p>

책과 문화활동으로 성장하는 엄마들

박미나 | 2022 마을지원활동가

'장미북클럽'은 책과 문화활동으로 성장을 꿈꾸는 엄마들의 모임이다. 코로나로 늘어난 가정돌봄으로 지친 엄마들이 독서와 예술 문화 활동을 통해 배움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성장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표제안자인 이수경님이 따로 친분이 있던 분들을 모아 시작하였는데, 그 분들이 활동 전에는 교류가 서로 없던 분들이라 어색할까 걱정했는데 모임 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니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많이 가까워진 모습이였다.

모임의 활동은 주로 각자 책을 읽고 인상깊었던 구절이나 나누고 싶은 페이지를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책을 다 읽고 와도 되고, 본인이 꽂히는 페이지만 읽어도 괜찮다. 가진 지식을 자랑하거나 유려한 말솜씨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책이 부담으로 다가오면 모임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한 규칙이라고 하는데 책읽기가 쉽지 않아 독서 모임을 꿈꾸지 못했던 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또한 각자 아침 글쓰기 활동을 하는데, 대표제안자 중 한 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 글쓰기를 하니 너무 괜찮아서 모임분들에게 추천하셨다고 한다. 일기가 하루를 정리하는 글쓰기라면 아침 글쓰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등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는 것들을 글로 쓰는 것이다. 쓰다 보면 오늘 해야 할 일 뿐 아니라 많은 생각들이 저절로 정리가 되는 매력이 있다고 한다. 저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글쓰기가 미뤄질 수 있는데 아침 글쓰기는 그렇지 않다는 장점 뿐 아니라 정신도 맑고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지기 때문에 성찰과 자기표현,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몇주 후 노트를 훑어보면 본인도 모르게 조금씩 긍정의 변화가 일어나며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하니 나도 갑자기 써보고 싶어졌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갯년기 맞이하기라는 제목으로 강사님을 초빙하여 관심 있는 엄마들을 초대해 함께 들을 예정이라고 한다. 삼사십대에는 '갯년기'하면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갯년기 전후 10년이 모두 갯년기 기간에 들어간다고 하니 멀지 않은 이야기 구나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관심이 생겼다. 그러나 갯년기라는 주제 관련 강사님을 찾아 보니 이 주제로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찾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공부관련, 육아관련 강의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우리를 돌보는데 정말 소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미나 모임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뭘까요?

장미북클럽 아무래도 엄마이다 보니 아이들의 컨디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예요. 한 가정을 빼고 대부분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인데 그 나이대 아이들이 면역력이 취약하여 한참 병원을 많이 다닐 시기가 감기 같은 병에 걸리면 모임을 못하게 되어 그 점이 가장 힘들고 아쉽죠. 두 번째로 마을 가까이에 열린 공간들이 많이 없어서 현재까지 모임은 대표제안자 중 한 분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터뷰 할때도 대표제안자 중 한 분의 집에서 진행하였다. 편안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커다란 테이블에 도란도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나도 모르게 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는 사실에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박미나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마을공동체는 어떤건가요?

장미북클럽 아이들이 마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관심과 사랑을 주고 받으며 예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애뜻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무엇보다 안전하고, 새롭고, 따뜻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엄마들의 모임은 대부분 남편, 자녀, 시댁이야기로 이루어진다. 속에 있는 고민과 이야기들을 쏟아내면 뭔가 속이 후련할 것 같지만 때론 모여서 수다를 떨고 헤어지는 발걸음에 뭔지 모를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씁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 아마도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불편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장미북클럽은 이런 문제들을 책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책을 통해 엄마, 아내, 며느리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를 돌아보고 이야기 나눔으로써 뒷담화나 자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중심을 나 자체에 맞추다 보니 아무래도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하고 싶은 것,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겪으면서 본인들도 처음에 많이 신기하고 놀라웠다고 한다. 그 잠깐의 시간이 엄마들 모두에게 일주일의 활력이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어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장미북클럽 멤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기 급급하다 보면 어느샌가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 시기가 오는데 이럴 때 우울증이 찾아 오기도 쉽고 흑시라도 깊은 슬픔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문제는 이런 마이너스 에너지들은 또 고스란히 아이들과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나 자신을 돌보는 일 같다.

우선순위에 밀려 나 자신을 위해 짧은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은데 장미북클럽 멤버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며 앞으로 다가올 갱년기까지 준비하고 실버 북클럽까지 가는 날을 꿈꾼다.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가진 에너지들이 부럽기도 하고 닳고 싶어졌다.

글을 쓰다보니 장미북클럽이라는 작명 센스 만큼이나 사랑스런 네 명의 멤버들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개구쟁이 막내동생 같은 미소로 모임을 이끌던 수경씨, 내어준 공간 만큼이나 따뜻한 만언니의 품이 느껴지던 승혜씨, 반짝반짝 아이디어와 수줍은 미소가 예쁜 은영씨, 조곤조곤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던 소영씨. 공모사업이 끝나도 앞으로 꼭 이어질 그들의 활동을 응원하며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장미북클럽 화이팅!!



이웃 만들기

9 틈새 놀이교육

초등학생들의 틈새 놀이교육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인수동	우이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계기로 아이들의 돌봄 공백 문제를 인식하여 마을에서 같이 해결하고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학교 정규수업 후에 방과 후 수업까지 생기는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의 공백시간 동안 아이들을 안전하고 유익하게 돌보는 활동을 합니다.	박미나 홍수연 윤복관

아이들을 지켜주는 마을 보안관

정민영 |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정민영 틈새놀이교육에서는 어떤 활동하는지 소개해주세요.

박미나 초등학교 하교 후 학원이나 방과 후 수업을 가기 전에 30분~1시간 정도 공백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전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랑 같이 놀며 시간을 보냈는데 코로나19 방역수칙, 또 안전상의 이유로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 머물지 말라고 해요. 고학년 아이들은 그 시간을 알아서 잘 보내지만 저학년 같은 경우는 집에 갔다가 다시 오거나 학교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틈새 시간을 엄마들끼리 돌아가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보는 일이 우선 제일 큰 활동입니다. 또 마을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등 독후활동 및 그림그리기도 하며 나이가 달라도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고요. 길어진 코로나로 신체활동이 부족해진 아이들과 돌레길을 걷고 땀흘리며 야외활동도 해요.

정민영 틈새 놀이교육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박미나 우이초등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면서 학교 주변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학교 바로 앞이 차도여서 차와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고, 노후 주택가다보니 골목골목 인적이 드물어 위험한 곳도 많아요. 마을에서, 특히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학교 앞 교통사고나 아동성폭력 등 최소한의 사고에서 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자는 계기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정민영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박미나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과 실내 공간에서 같이 책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은 인원수라던가 제약이 많았습니다. 신뢰 관계가 쌓이기 전이다 보니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걱정도 있었고요. 학교 앞이다 보니 카드 결제가 안되는 분식집 등 보조금사용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활동 증빙을 위해 매번 아이들에게 참가자명단을 적어달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한글을 모르는 미취학 아동도 제외는 아니라는 점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정민영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박미나 같이 책 읽고 독후활동으로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개구쟁이인줄로만 알았던 남자아이들이 의외로 생각이 깊다는걸 새삼 느꼈어요. 아이들과 물놀이할 때 진짜 행복했다고 말해준 것도 기억에 남아요. 또, 낯선 어른들을 경계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같이 몇 달 얼굴 익히고 같이 놀이 활동을 하다 보니 호칭도 '이모'로 바뀌게 되고 만나면 먼저 반갑게 인사해주고 고민거리도 털어놓고 했던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정민영 틈새 놀이교육은 마을안에서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박미나 마을 아이들을 지켜주는 작은 보안관이자 편한 옆집 이모들 같은, 공부가 아니라 같이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모임이 되고 싶어요. 마을안에서 아이들과 책을 주제로 놀이도 하고 신체활동도 이어가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던 학업스트레스, 친구관계고민 등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이웃이자 어른이였으면 좋겠어요.

정민영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미나 우리 마을을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고, 걱정하고,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웃 간 소통하고 같이 고민한다면 더 좋은 마을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공동체모임 활성화

1 동동

동네 언니동생들, 이웃과의 나눔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송천동	처음 모임을 만들 당시엔 적은 인원이 이웃에게 나누며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자 모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함께 준비하고 만들고 나눔의 행복을 느끼고, 더 많은 이웃을 만들어 나누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공기정화식을 제작하고 밀반찬을 만들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게 나눔 활동을 하며 소통하는 활동을 합니다.	오민영 김은영 백순희

사회와 멀어지는 이웃과 정을 나누는 동네 사람들

김혜화 | 2022 강북마을기자단

약속을 여러번 바꾸어 가며 만난 사업지기는 ‘동동’ 모임의 사업을 별다른 수식어로 자랑하거나 꾸미지 않고 담백하게 소개하며 사업의 어려운 점까지 마음에 담은 듯 풀어냈다.

송천동은 강북구에서 노령인구 비중이 높은 동네이다. 깨끗하고 편의성을 갖춘 신축보다 구옥이 많으며, 낮에 동네를 다니다보면 연령이 높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된다. ‘동동’은 ‘동네언니, 동생들이 모여 그런 마을의 소외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주위의 가까운 서너 명이 처음 시작하였다. 이들이 집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즐거운 일, 힘든 일 감추지 않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가 되자고 시작하여 지금은 동네에서 만나면 반가운 언니 동생이 되었다. 만날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좁은 공간에서 외롭게 지내는 분들을 불러내고 세상과 소통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동동’ 모임의 오민영님은 “함께 반찬을 만들고 나누어 먹고 친분을 쌓아 가며 이제는 아는 사이가 되어 가는 보람을 찾을 수 있어서 좋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활동으로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고 여기



서 얻는 소소한 보람을 지키고 싶다.” 고 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아 활동을 하는 과정은 지원해 주는 기관이 요구하는 조건과 제약이 따르고 그것을 지키며 진행하기가 수월하지는 않다. 또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지기가 부담하는 비중도 불어난다. 다음 9월에 화초 가꾸기 사업에는 함께 하는 이들과 비용을 일부 나누는 방안도 공리중이다.

어떤 사업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은 풀어가야 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동동이 풀기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은 것은 사업을 진행할 공간 마련이다. 8월의 사업은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일회성으로 장소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9월에는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내년의 사업을 부득이 접어야 할 상황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가능하였지만 장소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동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럼에도 “내년에도 그 후에도 이어지는 사업이 되고 공간의 문제가 해결되어 서로 돕고 함께하는 참여자들로 마을의 구심이 되려한다. 어르신들에게는 소일도 되고 잊혀가던 솜씨와 지혜를 살려 음식을 만들고 나누며 즐겁게 어울리는 사업을 하는 모임이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공동체모임 활성화

2 수선화

문화야 놀자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삼각산동	다문화 가정들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역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와 일본문화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며 재미있게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지연 현행자 이이무라 미치코

은근한 문화교류로 풍성한 일상을 만든다.

박미나 | 2022 마을지원활동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인 8월의 마지막주에 수선화 팀이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수업을 하신다고 하여 찾았다. 기대했던 것 보다 많은 분들이 활동에 참여해주어 놀랐고, 개구쟁이 같은 미소를 가득 머금고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는 이이무라 미치코 선생님의 또다른 모습에 놀랐다. 오늘은 일본 종이를 이용해 기모노를 만들어 나만의 카드를 완성하는 활동이었다.

지난번 활동 때 한복 접는 방법을 배워서 한복 카드를 완성했는데, 색종이로 한복을 접어서 다문화 모임에 기부한다고 했더니 고맙게도 회원들이 한복을 손수 접어 왔다.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을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어 모두에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종이접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했는데 빔을 활용해 동영상도 다같이 보면서 진행하니 언어와 상관없이,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어 그 방법이 너무 매력적이었다.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미치코 선생님 덕분에 수업시간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 하였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동시에 들리는데 그게 이질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만들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바로 문화교류구나 싶었다.

미치코 선생님이 오랫동안 한국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한국문화와 일본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서 수업 중간중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잘 녹여주었는데 그 부분도 너무 좋았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경험한 연륜에서 나오는 힘이랄까? 오랜만에 하는 색종이 접기가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지만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웠다. 단색이 대부분인 우리 색종이와 달리 일본 종이는 일본 특유의 화려한 무늬들이 가득했는데 색상을 잘 매치 못하는 나조차도 완성한 것을 보니 금손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이무라 미치코님을 만나기 전 제출하신 계획서를 여러번 읽어보기도 했고 사전컨설팅 때 만나서 직접 설명을 듣기도 했지만, 사실 문화교류가 무엇인지 조금은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졌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현장의 분위기와 열기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니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수업이 끝나고 조용한 카페에 선생님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업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뭔가 들뜨고 기분 좋은 선생님의 미소를 보고있으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열심히 준비해서 사람들과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느끼는 그 뿌듯함과 행복감이 나에게도 전염이 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인지 사전 컨설팅 때 보지 못한 개구쟁이 같은 선생님의 미소가 시간이 지나서도 두고두고 기억이 났다.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았다. 원래 삼각산동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어 수업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힘들어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던 수강생들의 지인들과 선생님의 지인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활동마다 평균 12~14명 정도의 회원이 참여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기도 했지만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수록 은근히 문화교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소통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마음이 더 열리는 것 같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들고, 거기에 대화를 곁들이다 보면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고 어색했던 사이도 한결 부드러워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요리나 음식에 관심이 있어서 모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한다. 수선화 팀만의 특별한 매력은 거기에 문화교류라는 목표를 두고 그것을 상기 하면서 서로 소통하기에 방향성을 잃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와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같다.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지난번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장소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이번에는 강북구마을자치센터에서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삼양청년회관을 연결해주어 장소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노트북 들고 찾아가도 늘 웃으면서 알려주는 마을자치센터 식구들 덕분에 실제적인 활동 외에 서류 부분이나 기타 다른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다고 한다. 다만, 연결해준 시설들이 대부분 공공시설이라 주말대관이 어려워 활동을 평일에만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은 여전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공시설도 주말대관이 가능한 곳이 많이 생겨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남겼다.

문화교류와 추후 모임에 대해서는 늘 고민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목표를 정하는게 가장 어렵다고 한다. 똑같은 활동을 계속 반복한다면 모임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모임의 다양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으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추후 모임에 대한 지속가능성 여부이다. 그래서 평가회 때 회원들과 이것에 관련된 논의를 해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실 의사가 있는 걸로 확인되면 추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의사는 있다고 한다.

수선화 팀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란 주민들이 한 테마를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서 추진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 속에서 친하게 지내는 그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마을자치센터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두 번이나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좀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모임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물었다. 회원들의 반응이라고 답하며, 활동할 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준비할 때 힘들었던 과정들이 다 잊히고 나도 모르게 다음 활동을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마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모두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나누는 즐거움과 소통하는 기쁨의 맛을 알게 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마을 일을 계속 하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사실 이번 사업의 경우 다른 운영진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 혼자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해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힘든 부분을 신규 회원들이 채워주었다고 한다. 빌린 공간에 그릇이나 냄비 등 주방 집기가 부족한 경우도 선뜻 가져와 주고, 도움을 요청하면 한국음식(잡채나 불고기등)을 직접 해오기도 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활동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한다. 따로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활동이 끝나고 나면 다같이 모여 다음 활동을 의논하고 준비물을 체크하는 과정들을 함께 해나가며 소속감이 생기고 모임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공동체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모임이 좀더 단단해지고 결속력이 생기는 것이라면 수선화 팀은 그 목표를 향해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이무라 미치코 님의 바람대로 이렇게 다양한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공동체모임 활성화

③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우리도 함께 즐겁게 배우자!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번1동	함.크.아는2014년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부모 모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면, 점차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육아와 자녀교육에 지친 성인들에게 숨쉬고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모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모임의 성향이 역동적이지 않지만 저력을 가지고 꾸준히 변화의 범위를 넓혀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서서히 스며들어 함께 살아가는 모임으로 키워가고 싶습니다.	신영아 김기주 임성이

엄마들도 함께! 즐겁게! 배우자!

조상은 | 2022 강북마을기자단

“엄마들도 재미있자! 엄마들도 배우자!”

강북구 번1동을 중심으로 같은 어린이집 엄마들의 친목모임으로 시작해 2022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의 사업지기 신영아씨를 만났다.

조상은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는 무엇인가요?

신영아 2014년 같은 어린이집 엄마들의 친목모임으로 시작해서 독서교육, 음악교육 등 재능기부를 하는 공동육아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2017년 찾동 사업을 시작으로 그 후 부모 커뮤니티 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여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지는 목표였지만 점점 '엄마들도 재미있자! 엄마들도 배우자!' 라는 생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상은 오늘 진행하시는 수업은 어떤 활동인가요?

신영아 많이 관심 있으신 커피 수업입니다. 커피에 대한 이론 설명을 듣고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 드립 백을 만들어 보는 수업입니다. 수업 후에는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능하면 꼭 가지는데, 이때 친분이 쌓이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효과가 큼니다. 보통 수업이 2시간이면 다과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2시간이 넘어 갈 정도로 서로 편해집니다.

조상은 코로나 시대에 모임을 이어 나가기가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활동을 하셨나요?

신영아 대부분 가까이 살아서 오고 가며 얼굴을 볼 수 있었고, '하늘을 나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도서관 공간과 마을문고에서 봉사하는 멤버들이 있어 두세명씩 잠깐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서 키트 나눔 활동을 많이 진행했는데 도서관에서 대여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단톡방이 활성화 되면서 우울한 코로나 시절에 서로에게 위로받으며 더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상은 친환경 활동으로 '찬밥 세제 만들기'가 있던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 주세요.

신영아 한동안 언론에서 다뤄진 찬밥세제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직접 만들다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임 사람들도 관심은 많은데 실패했다는 말들이 많아 직접 만들어보고 성공한 대표 제안자에게 함께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친환경에 관심이 많아져서 '삼푸바 만들기'와 '친환경 수세미 뜨기' 활동에 호응이 좋았는데 찬밥세제도 기획 단계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조상은 온라인 독서 모임은 비대면이었다고 하는데, 진행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신영아 대부분 친분이 있는 분들이 많았고 대부분 직장인이라 비대면 회의 등에 익숙하셔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로 바쁜 것을 이해하기에, 책을 중심으로 현 시점의 다양한 주제들을 말하기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하여 책을 읽지 못해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독서 모임의 경우 진입 장벽이 높아 새로운 분들의 유입이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조상은 매월 진행하시는 쓰레기 줍기 활동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신영아 처음 계획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모여서 함께 우이천을 돌며 놀기도 하면서 즐겁고 뿌듯한 활동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코로나로 인원 제한이 생겨 쓰레기 봉지를 나눠주고 각자 인증 샷을 찍어 보내면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가족끼리 우이천·동네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초등학교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게 아쉬워서 쓰레기 줍는 다른 가족을 만나면 본인들도 줍겠다며 한 두 시간을 함께 쓰레기를 줍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 쓰레기 주우러 갈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졸라 우리도 우이천으로 나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 자주 오는 중학생들은 시간이 남을 때마다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와서 동네 쓰레기를 주우며 뿌듯해했습니다. 중학생들은 관리하기 힘들다는 편견들이 있는데 검정 비닐봉지와 집게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 열심히 쓰레기를 줍는 중학생 아이들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조상은 모임 활동때문에 바빴을텐데,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신영아 저는 아이와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아이뿐 아니라 아이의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덕분에 걱정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서로 알기에 내가 사는 동네에 더 정이 드는 것 같고, 공통 추억이 생기면서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야기 거리가 많아졌답니다. 아이가 모르던 엄마의 새로운 모습, 엄마가 모르던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서로 존중하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엄마를 살짝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임 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존경·인정받는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조상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머님들이신데, 아버님은 안 계셨는지 궁금해요.

신영아 아버님들 중 요리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요리 강의를 가끔 진행 해주셨고, 벽화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주시거나, 물놀이 때 풀장을 만들어 주시고 뒷정리 해주시는 등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조상은 모임을 운영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과 보람을 느끼신 점은 무엇인가요?

신영아 아이들이 커가고 삶이 변하면서 모임 참여자들이 줄어들 때 서운한 마음이 커집니다. 공동체 활동, 작은 도서관 활동 중에 생각을 잘 못해서 계획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괴감도 듭니다.

저희 모임 어머님들은 일명 순하고 조용한 분들이인데 지역 학교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직책이 없음에도 함께 모여 항의사항을 전달하고 지역정치 등 기타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여 힘을 실어주고 의견을 제시하고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실 때 너무 뿌듯하고 든든했습니다.



조상은 이런 비슷한 모임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당부 해주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신영아 시작할 때는 아이들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선배 모임 지기 분들께서 아이들도 좋지만 엄마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셨었죠. 그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우선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엄마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고 우리 모임도 엄마들의 즐거움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임이 오래 가고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은 이 글을 읽는 주민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신영아 '마을공동체 모임'이라고 하면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하게 생각해 보시고 주위 분들과 힘을 합쳐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의 모임을 만들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강북구마을자치센터'에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 모임, 공간들도 모두 알려 주십시오. 혼자면 시작도 못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도 다양한 강의를 소개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 알고 쓰레기 배출, 제로 웨이스트, 채식 등 다양한 행동들을 실천하고 시도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의 다양한 활동들을 보면서 '아빠가 즐거워야 아이들도 즐겁다.' 라는 모토로 수유1동에서 아빠들이 맥주 만드는 모임을 하며, 지금은 수유 수제 맥주로 동네 맥주를 통해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결국, 내가 행복해야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힘을 얻을수 있는게 아닌가 싶다. 모두가 행복한 마을, 다같이 더불어 행복한 동네, 정이 가는 동네.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해 내 시간을 내어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 모두를 응원한다.



공동체모임 활성화

4 핸드메이드 사랑!

행복한 마을 건강한 지구 함께 만들어요!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번2동	다문화가정과 이웃주민들이 환경을 생각하며 EM 비누, 세제 만들기, 삼베실로 수세미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며 소통하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 실천 중 하나로 클린액션(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며, 우리의 작은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길 바랍니다.	가마다 미유키 스즈끼 आयुमी 송문자

마음을 열면 행복한 마을이 보여요

김인제 | 2022 강북마을기자단

“아안농 하아세요? 바안가압 스음니다~^^”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아침. 손님 맞이 하라, 방명록 안내하라, 분주하지만 상냥하게 인사하는 그녀에게서 리더임을 읽을 수 있었다.

친절한 한국 사람들

강북구 번2동 금호 아파트는 300여 세대가 울창한 나무숲(오패산)을 안고 있는 숨쉬기 편한 마을이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이면, 경로당에 삼삼 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뜨개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핸드메이드 사랑! 행복한 마을,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요!” 핸드메이드 사랑! 모임의 구성원은 가르치는 이들도, 사업 공모자도, 놀랍게도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다. 기획을 즐겨하는 사업지기 미유키씨는 26세의 딸을, 뜨개질을 꼼꼼하게 가르치는 예초꼬씨는 대학생 두 딸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आयुमी씨는 세 자녀를 둔, 부지런한 직장인 여성들이다.

이들은 약 20여 년전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다문화 가정 센터에서 만난 사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살아 오면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많이 어려웠지만, 친절한 한국인들은 그때마다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 주었다. 특히 이 모임은 통장님과 경로당 회장님께서 홍보도 해 주시고 장소도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다.

자연도 살리고 피부도 살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모임이어서 가정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경로당에 10여 명이 모이게 되었고, 앞으로 15명 이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연속 지원 팀이라서인지, 모두들 자연스럽게 익숙해 보였다. 지난해 아쉬웠던 부분들을 올해는 더 잘 해보고자 환경문제에 관한 세미나도 계획했다.

천연실을 이용한 마스크 스트랩, 수세미, 가방 등을 손으로 만들며 EM을 이용한 천연비누, 천연세제,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친해진다. 시원한 가을에는 통장님을 중심으로 이웃과 함께 오패산과 우이천 주변 쓰레기 줍기 활동도 계획중이다.

마음을 열면 행복한 마을이 보여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왠지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엔가 마음을 같이할 이웃이나 친구들을 찾는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 하루 가족과 정다운 대화, 서로 반갑게 소통하는 이웃, 깨끗하고 행복한 마을을 꿈꾸는 신선한 이 공동체를 응원한다.





마을특화활동 지원 - 공간

1 놀명쉬멍

창의놀이터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수유1동	부모와 아이, 이웃과 함께 건전한 놀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놀명쉬멍 '창의놀이터'라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지속적인 모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주민들이 항상 방문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놀명쉬멍'이 지역주민에게 많이 알려지고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이 다양해졌습니다. 주민들과 환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하는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운영하여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친목과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송민정 박영진 김병주

놀명쉬멍 놀다가세요

박명주 | 2022 강북마을기자단

빨래골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수유1동에는 2018년부터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동네에 재미난 공간들이 생겼다. 빨래골 생활문화공작소, 청소년공간 모락은 주민 스스로 우리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고자 하는 땀방울들이 모여 그 결실을 이룬 것이다. 오늘 만나볼 '놀명쉬멍'도 그중 하나다. 보드게임 강사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놀명쉬멍'이 수유1동에서 어떻게 이웃들과 만나고 있는지 운영위원장인 송민정씨에게 들어본다.

박명주 '놀명쉬멍' 공간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송민정 '놀명쉬멍'은 '놀며 쉬며' 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이에요. 2016년 보드게임을 가르치는 마을교사 강사들이 그 재능을 이웃들과 나눠보고 싶어해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을 만들고 2017년부터 수유1동 축제와 움직이는 청소년 카페에 참여해 재능나눔 활동을 해왔죠. 하지만 공간이 없다 보니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고 성과가 축적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자! 마음 먹고 보증금을 마련해서 3년 전에 공간을 만들었죠. 공간이 생기고 나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물론 우리 모임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었구요.

박명주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송민정 올해는 '친환경 삼베 수세미 만들기' 등 환경을 생각하는 소품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요. 손으로 작업하는게 좋더라고요. 성취감도 생기고 손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어요. 게다가 손을 움직이면서 입으로는 수다를 떨 수 있어요. 그래서 뜨개모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부모와 청소년 자녀, 동네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연말에는 놀명쉬멍 활동보고 한마당도 기획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만들었던 작품도 전시하고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예요. 만두를 직접 빚어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했는데 코로나로 못해 아쉬웠어요. 올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

박명주: 코로나로 모임 운영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송민정 2020년에는 모임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5명이내의 모임을 여러 번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봤죠. 힘은 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코로나로 사람들의 불안감, 우울감도 높아졌더라고요. 비대면 방식이지만 키트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했어요. 한창 유행했던 달고나 만들기 키트를 나눠드렸는데 부모들이 추억의 뽑기놀이를 아이들에게 전수 해주면서 즐거웠다고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하셨어요. 버섯키우기 키트도 집에서 키워 직접 요리까지 해서 드셨다고 하구요. 모임지는 못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해봤죠.

박명주 공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송민정 첫 고비는 공간을 만든 해였던 같아요. 의기투합했던 초기 멤버들이 막상 공간을 열고 나니 생각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율할지 몰라 서운한 감정이나 갈등이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서 현재는 각자의 역할들이 명확해지고 소통의 방법들도 서로 맞춰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재정상의 어려움을 많이 물으시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보증금을 마련할 때도 운영진들이 기꺼이 십시일반 했어요. 운영비는 수업을 하시는 강사들이니 이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료의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했어요. 작년에는 후원회원제도를 운영해 보았는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과감하게 없애버렸어요.

박명주 어린 자녀가 있으신데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송민정 힘든 점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이 공간을 함께 이용하고 있어서 좋았던 점도 많았어요. 집이 가까이 있어서 한겨울에는 한밤중에 보일러를 키러 오기도 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잠시 집에서 벗어나 앉아 있다 가기도 하고,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마을특화활동 지원 - 공간

2 닳별

닳별과 함께 설담 (설레임을 담다)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번3동	2020년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역의 아이들과 책읽기, 공동육아의 활동공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번3동 주민자치회의 주민 공유 공간 찾기 프로젝트에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나눔의 활동을 통한 주민자치회 분과활동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며 더 많은 주민이 함께 즐기고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환경 실천운동, 요가와 스트레칭, 주민 소모임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김미현 강수옥 박유성 김미진

밤하늘에 늘 떠 있는 닳별처럼, 마을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닳별

김세진 | 2022 마을지원활동가

박명주 앞으로 놀멍쉬멍이 동네에서 어떤 공간이 되기를 바라세요?

송민정 쉼의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여기서 휴식도 하고 관계맺기의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해요. 사람과 사람은 만났을 때 많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드게임만 하더라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요. 배려하는 마음, 기다려 주는 연습, 승부에 초연해지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이곳이 이웃들과의 소통을 통해 힐링과 쉼, 배움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명주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송민정 마을공동체는 '연대'라고 생각해요. 놀멍쉬멍이라는 모임도 함께 하는 선생님, 참여해주는 주민, 아이들이 함께 해야만 가능하죠.

김세진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유성 닳별에서 해금을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같은 학급에 다니며 인연이 닿아 활동을 하고 있고, 6년 정도 함께 하고 있어요. 올해 진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대표제안자입니다.

조성주 닳별에서 뜨개질과 해금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안활동에 대한 수업에 관심이 있어 소개를 받아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석은영 저는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고, 닳별에서 해금과 뜨개질과 퍼실리테이터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미진 닳별 작은 도서관 운영을 맡고 있는 김미진입니다. 마을공동체 공간 활동에 실무자로 참여를 하고 있고 회계,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모임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김미진 달별은 학부모님들의 인연이 시작이 되어서 (자녀 6, 7살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활동을 위한 공간을 계속 빌리러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져서 달별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을지 고민하다 아이들이 책과 함께 지내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져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빌라 (10~12평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현재 이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진 공간을 늘리면서 걱정은 없으셨나요?

김미진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이 되었는데, 공간을 확장하면서 힘을 주신 분들이 많아 결단을 내리고 큰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어요. 막상 큰 공간으로 오니 더 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을 만날 수 있고, 좀 더 편하고 넓은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점이 좋습니다. 빌라는 영유아를 위한 공간으로 느껴졌다면 이제는 학생, 성인까지 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커진 것 같아 보람을 느껴요. 처음에는 학부모님들 위주였지만, 이제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김세진 달별이란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걸까요?

김미진 함께 하는 어머니들이 주신 의견이었어요. 카시오페아를 이끄는 별자리를 순 우리말로 달별이라 부르는데, 의미도 좋고 이름도 마음에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운영진들의 이름도 별자리로 부르기도 했어요.



김세진 달별 활동을 함께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미진 시작은 아이였고 지금도 아이가 중심이긴 하지만, 활동을 하다보니 점점 내 아이 주변의 친구들도 보이고, 주변 학교 친구들도 보이고 점점 관심이 커져가면서 더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가 하는 활동에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유성 처음에는 아이가 좋아해서 했던 활동인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조성주 코로나로 인해 소통이나 정보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 정보도 얻고 좋아요. 아이가 크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런 공간이 생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서 좋아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점들이 좋습니다.

김세진 달별에서의 활동 중 어떤 것들이 기억 남나요?

석은영 달별을 통해 해금을 접하게 되었는데, 해금이 전통악기라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느껴지고, 실력이 늘면서 성취감도 느껴져서 재미있어요. 뜨개질도 성취감이 생기고요. 도서관에서 구하지 못한 책(신간)을 달별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김미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 달별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들과 해금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힐링이 되기도 해요. 11월에 몸살림 체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하면 또 얼마나 재미있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박유성 아이가 역사 관련된 활동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서 기억에 남아요. 개인적으로는 해금을 시작했는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 어떻게 하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할까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조성주 전통음식과 관련된 활동을 아이가 재미있어 해서 기억에 남아요. 개인적으로는 해금을 배우는 활동과 손뜨개 역시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현재 닷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미진 올해는 환경 관련해서 우리 동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플로깅), 건강 체조는 요가를 준비했다가 강사료가 비싸서 고민 중에 있고, 동아리 사업은 예술 관련 동아리로 하려고 했으나 주민분들이 너무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주민 네트워크 동아리로 이름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뜨개질, 퍼실, 민화 동아리 이렇게 세 개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과 평가 워크숍 역시 준비 중인데, 동아리 활동이 제일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김세진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김미진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활동도 좋아하시는데, 홍보가 너무 어려워요.

김세진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김미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홍보가 너무 어려워요. 닷벌 도서관이 있는 건물이 간판을 달기 어려운 상황이라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아 더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게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보니 그것 역시 활동을 확대하는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 중이기에 자원봉사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단체번호가 없다보니 자원봉사를 받을 수가 없어 고민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센터에서 수요를 조사해보고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김세진 마을안에서 닷벌은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김미진 지금처럼 누구나 와서 활동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했다면 이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김세진 닷벌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김미진 마을공동체란? 누구나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나눠 먹고, 즐거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풀고 갈 수 있는 곳. 이라고 생각해요.

마을특화활동 지원 - 공간

③ 한누리예술협회

모퉁이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인수동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겪고 있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이겨내고자, 2021년 마을공동체 공간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에도 한누리예술협회 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대화로 들려주고 소통하는 공감활동, 춤과 노래 등을 배우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 그리고 축제마당을 열어 주민 모두가 즐기는 축제활동을 합니다.	유미애 한미숙 김도현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하고 싶다.

곽선희 | 2022 마을지원활동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한누리예술협회를 만나다.

국립재활원에서 인수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가다보면 '한누리예술협회'라는 공간이 있다. 이름만 보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협회이거나 공간이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한누리예술협회'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긴 하나 마을 주민 누구나 관심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에게 열려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한누리 공간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합창모임, 인생이야기, 명상과 춤 등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주민들과 소통과 교류를 시도하고 있는 한누리예술협회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았다.

한누리예술협회의 유미애 대표를 만나 마을지원사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한누리 단체에서는 전통문화활동을 하는데 마을지원사업을 하면서 마을사람과 어울려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불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마을지원사업을 하게 되었다.”

올해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지 2년차가 되었다.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재가 많았다. 한누리 단체 회원들이 어려모로 도와주고해서 잘 버텨냈던 것 같다. 올해는 더 많은 주민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덕분에 한누리 단체도 알게 되어 좋았고 주민은 물론 단체 회원들도 더 참여하게 되어 점점 더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일까?

“지난해 진행했던 바자회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로 인한 제약으로 참여제한이나 하지 못하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어렵게 바자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도 많이 찾아와주고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게 되어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았다. 올해도 사업내용이 좋아서 그런지 참여하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다.

합창단 활동의 경우 처음에 선곡 때문에 의견들이 있었으나 쉬운 곡보다는 의미 있는 곡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지면서 ‘This is Me’라는 곡을 선정하게 되었고 기대가 된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올해는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기대가 되는 한해이다.”

마을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유미에 대표도 달라진 점이 있을까?

“한누리라는 협회를 만들면서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사람들을 만나며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과 어울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다보니 내가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주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히려 주민들이 나를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같이 하는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 나도 더 베풀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로 인해 이웃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요즘들어서 마음이 많이 변화된 것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를 물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또는 마을에서 어떤 공간으로 남고 싶은지 궁금했다.

“공간을 더 많은 마을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매일 공간에 주민들이 방문하고 같이 즐겁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통문화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가족처럼 옛날 시골마을처럼 소통하며 지내고 싶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 같다. 마을활동을 통해 이웃과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나로 인해 이웃도 성장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누리예술협회 공간에서 만난 유미에 대표, 마을공동체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설레임과 기대를 기억하고 2년차인 지금은 적극적이고 마을활동을 확장하려는 의지가 인상 깊다.

변화하는 공간의 모습을 보며 ‘마을’과 ‘관계’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유미에 대표의 바람대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고 시골마을처럼 소통으로 복적복적인 공간이 되길 마을이웃으로 응원한다. 마을처럼 소통으로 복적복적인 공간이 되길 마을이웃으로 응원한다.



마을특화활동 지원 - 공간

4 해당사항없음

어린이 공유공간 '작당'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인수동	어린이를 확대하는 안전한 공유 공간 '작당'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어린이는 아지트에서 확대, 안전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동시에 운영주체로서 함께할 수 있게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김민정 권나민

어린이 공유 공간 '작당'에서는...

박영진 | 2022 마을지원활동가

제법 쌀쌀해진 바람에 낙엽이 뒹구는 골목길. 센터 민영샘과 팔짱을 끼고 공간 '작당'으로 가는 길이 설렌다.

큰 길에서 동네 안으로 들어면 보이는 옥탑이 있는 단층집 대문엔 '공유공간'이라고 도박도박 쓴 종이가 붙어 있었다. 벨을 누르고 낯익은 얼굴의 나민씨가 이끄는 대로 들어섰다. 마당엔 웬 책상과 나무들을 품고 있는 화분들로 여느 집과 같은 풍경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엔 아기자기하면서도 뜻있는 웹자보와 행사 진행표가 보였고, 천장에서 매달려 내려온 엽서 크기의 전시 작품들은 마치 공중 부양하듯 떠 있는 것이 아주 멋 들어졌다. 공간 내부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다. 넓은 테이블이 놓여 있는 방에서는 여러 명이 둘러 앉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방에 들어서자 독서 모임을 위한 책이 꽂혀 있는 책장과 필사된 포스트잇을 붙인 벽면이 눈에 들어왔다. 공간을 둘러보고 차 한잔을 마시려 하니 민정씨가 도착했다.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해당사항없음'은 재치있는 모임명 때문에 모임명을 재차 확인했던 기억이 있다. 사업지기들은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가장 궁금해 첫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김민정 한달에 한 두 번 모이는 책읽기 모임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모두의 학교 인큐베이팅 사업 공모를 통해 함께할 친구를 찾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나민이는 건너 건너 소개를 받고 사업 기획하던 마지막 날 전화해서 저는 누구누구인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혹시 같이 하실래요? 했는데, 흔쾌히 할래요! 라는 거예요.

박영진 어떤 마음으로 흔쾌히 수락했을까요?

권나민 그러게요. 관심 있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만든다고 하고, 20대 청년들이 이야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해 보고 싶다는 제안에 만나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재미있는 제안은 거절하지 않는 편이어서요.

재밌는 제안은 '해당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으로 이어졌고, 지역의 네트워크와 연결망을 확보하며 지금의 강북구에서 공유 공간의 구성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모임을 만들고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 등 기억에 남는 활동 소개를 들어보고 싶었다.

권나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를 통해 진짜 우리 이야기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에 관련 워크숍을 진행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사회적으로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스스로 가시화 하지 않는 이상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 중년을 대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내보는 활동인 '나만 아는 나의 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포토폴리오 만들기 작업으로 나이대별 프로필과 사진 등을 이용해 책을 만들면서 자기 생애를 돌아보고 입체적인 삶에 자신감을 줄 수 있었던 활동 또한 기억에 남아요. 도록을 만들어 '해당사항없음'이라는 키워드를 확장시키기 위해 학교밖 청소년들과 홍대에서 전시회도 가졌고, 올해는 무중력 청년들로 '점박이의 입장' 공연과 온라인으로 '낭독의 시간' 등 해당없는 것들에 대해 바꾸려고하기 보다는 친구들과 연결되어 손잡고 나누는 전시회와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구요.

박영진 공간에서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권나민 강북구에 시장이 있던데 여성상인 대상으로 '우리가 명함이 없지 경력이 없냐'라는 제목으로 펀딩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조건에 맞거나 해당사항에 표시를 남기는 것에 익숙해져서 기타 또는 해당사항없음의 너머를 생각하지 못한다. 뭔가 다르거나, 뭔가가 없거나, 해당이 되지 않거나, 어렸거나 힘든 슬픔을 겪는 현실을 사회적으로 문제라 여기고 바꾸기보다는, 그저 일상이라 여기며 힘든 사람들끼리 달려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서로를 연결한다. 이런 청년들은 중력이 없어 바로 설 수 없거나 날아가 버릴지 모를 서로를 잡아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생각하지 못한 면을 해당사항없음에서는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다. 마을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곳곳을 살피고자하는 마을공동체와 맞닿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함께하고자 하는 모습과 활동들에 대해 알게 됐는데, 마을 공동체라는 사업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있는지도 궁금해진다.

김민정 저희가 모임이나 워크숍에서 서로 좋은 동료나 친구가 되는데 대관한 장소의 시간에 쫓겨 황급히 헤어지게 되는 아쉬움이 있었고, 후속 모임의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하던 끝에 민달팽이(청년주택), 공동육아 등에서 경험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마을의 공동체 속에서 동네친구 같은 연결감, 자리 잡음에 대한 욕구가 관계 맺음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고, 지금의 공간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의 고민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린이랑 같이 작업장을 하고 놀이터를 만드는 단체에서 활동했던 경험으로 새로운 연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어떤 곳에 터전을 잡았을 때 관계 맺었던 경험을 확장하고 연결해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적극적으로 만나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죠.

박영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진행은 어땠을까요?

권나민 어린이를 만나는 교회활동과 지역아동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오랫동안 한 경험이 있어요. 그 기억으로 다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비해 모집 과정부터 수월하지 않았어요. 센터나 어떤 기관에 소속된 아이들을 만나 수업한 경험은 있지만, 우리의 공간에서 새로운 대상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경험이 없었죠. 변수가 많다는 사실을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고려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쓰는 말, 폭력적인 행동 등 가르치는 사람으로 교정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삼겹살 먹는 거 좋아해요'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지향하는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에 당황했었어요. 설명과 대답이 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뢰를 쌓고 어떤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저의 방식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과 우리와 천천히 알아갈 시간이 없고 단발적으로 빠르게 가버린 어린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할지 방법이나 순서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순수하다. 뒤돌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 공간에서 지켜야하는 규칙을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선에서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떤지. 이 또한 소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남겨 보았다. 지금의 청년들은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앞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아는 것 같았다. '해당사항없음'에서의 마을공동체는 아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고 변수가 많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얘기했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민을 좀 더 드러내고 풀어내는 것은 마을공동체와 마을의 어른들이 함께할 몫으로 남겨뒀으면 한다. 공간을 나서면서 이 길이 멀지 않았는데, 미리 찾아와 함께하지 못했을까? 아쉬움과 고마운 마음을 품고 인터뷰를 마친다.





마을특화활동 지원 - 의제

⑤ 모두하우징 집수리봉사단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모임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강북구	강북구 내에서 집수리봉사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2021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1회 정기적으로 활동 하면서 연간 열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봉사자의 수도 늘어나는 등 공동체 활성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정적 지원으로 돌볼 수 없는 주거 취약자들이 스스로 간단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집수리를 실시함으로써 주거 및 일자리 등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안장호 김 경 박임수

강북구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단

이우진 | 2022 강북마을기자단

이우진 반갑습니다. '모두하우징 집수리봉사단'의 모임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안장호 저희는 17년 '열린사회 북부시민회'의 '해뜨는 집'이라는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여도 하며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어요. 봉사도 하며, 각자 사업장도 운영 하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무료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21년 5월 '모두하우징 집수리 봉사단'을 만들고 올해 마침 시작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강북구 전체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10가구의 주거공간을 보다 살기 좋게 수리하는 활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모임구성원이 5명 정도 였는데, 현재는 25명 정도가 함께 지역공동체 정신을 집수리활동을 통해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구성원과 또한 간단한 수리를 하고 싶는데 방법을 모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수리 교육'도 2번 진



행했구요, 앞으로 많은 교육을 통해 집수리 봉사활동가로 많은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우진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장호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힘이 듭니다. 또한, 구청에서 한정된 재원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에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더많은 취약계층의 세대에게 도움에 손길을 골고루 나눠줄수 없다는 것이 아쉽고 어렵습니다.

이우진 더 많은 주민분들이 '모두하우징 집수리 봉사단'을 알고 함께 하면 너무 좋을것 같은데요. 마을안에서 모두하우징 집수리봉사단은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안장호 먼저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 좋겠어요. 봉사활동가들이 공동체 의식을 만들고, 주민들도 집수리를 배워서 자가 집수리를 하게 하고, 지역사회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집수리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것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봉사활동가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강북구 내의 취약계층 주거도 개선하고, 공동체로서 봉사활동가들과 교류를 통해 마을자치공동체로서의 역할도 발전시키는 그런 모임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이우진 모두하우징 집수리봉사단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장호 지역주민들과 공동체도 형성하고, 서로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집수리를 하시는분은 기술도 익히고, 일자리를 서로 소개시키는 기회도 가지고, 소소한 잔고장 수리도 하고, 큰 공사는 서로 품앗이도 하고. 이런 여러가지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서로간에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마을공동체 아닐까요?



마을특화활동 지원 - 의제

6 소나무협동마을

소통과 나눔이 무르익는 마을 만들기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삼양동	삼양동은 경사로가 많고 오래된 주거지가 많다보니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문화활동을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2년에 주민들의 마을사랑방,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생겼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주민공동체가 활발히 소통하며 세대간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들을 진행합니다.	이성태 이한미

마을에서 일자리 만들기, 소나무협동마을과 함께 해요!

김세진 | 2022 마을지원활동가

옆 집 일을 마치 내 일처럼 하는 동네문화, 노인, 주부, 청년 누구든 소외되지 않는 마을 만들기를 꿈꾸는 소나무협동마을과 활동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김세진 모임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이성태 삼양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나무협동마을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 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15년 12월에 구성이 되었고, 16년도부터 모임안에서 역할을 나누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주민협의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김세진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이 마을분들이시니 서로 친분이 있었나요?

이성태 얼굴은 본 적이 있으니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이거나 안면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친분도 쌓이며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세진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성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가 가장 좋아 회의를 거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의 40퍼센트를 사회적 약자에게 환원해야 하는데 그 면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마을활동에서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일반협동조합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형태를 갖추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성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은 서울시에서 공간 사용 승인 예정이며 승인을 위한 서류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간이 생기니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 사업 모델을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양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보고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레이저 각인기를 배워보았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점들이 있어 이후에는 역량강화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 머그프레스 (머그컵 표면에 사진이나 그림을 전사하는 것)를 배워보았는데 숙달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과물도 만족스럽고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어 앞으로 집중적으로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념품이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소문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세진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 혹은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성태 처음에는 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니 관심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였고, 그것이 자극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서울시 조례만 있었지 운영지침이나 정관 등 아무것도 없어서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등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부 활동가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워크숍도 진행하고, 컨설팅도 진행하면서 모양을 갖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데 의의가 있고, 마을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세진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성태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토론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가장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점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좋아서 했던 일들이 돈이나 이익도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보장되어야 하다보니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찰이 생기거나 힘든점이 발생할 때는 무엇보다 리더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책임감과 참여율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어느 모임이나 그렇겠지만, 책임감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주인으로서 설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김세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성태 나한테 하는 표현이 아니지만,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잘한다~ 열심히 한다.”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복희 저는 모든 활동이 좋았습니다. 긍정적이라서 지나고 보니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는 분들이 더 많아진 점 역시 좋았습니다.



김세진 마을안에서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이성태 앞으로의 희망은 자체적으로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는 어렵더라도 일거리는 창출하여서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20~30만원이라도 보수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생기다보니 마을 작업장 같은 것으로도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된 가정주부들이나, 일자리 구하기 힘든 청년세대들 등도 사회의 소외에서 벗어나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고, 활동이 수익창출로도 이어져 결국은 즐거운 마을 살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복희 저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지점인 다툼 없이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자! 라고 했을 때 빼는 분 없이 마음 모아서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모임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김세진 소나무협동마을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이성태 마을공동체란 '사람이 함께 가는 것' 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듯이 함께 가는 것이 마을공동체가 아닐까 싶네요.

이복희 저는 '함께 가는 길'이라고 정의 하고 싶습니다. 응답하라 1988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예전에는 동네에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현재는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옆집 일을 마치 내일처럼 하는 동네 문화. 그것이 마을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진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이성태 시예산을 받기가 어렵다면, 구청예산으로라도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 마을공동체 사업은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만족도도 높고, 결국 마을 즉, 강북구에 축적되는 사업이라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예산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을특화활동 지원 - 의제

7 수유1동 축제기획단

세대별 주민 연극활동을 통한 마을문화 만들기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수유1동	세대별 주민 연극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연극반 활동 과 연극축제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문화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고인석 최선미 차재혁 김영선

수유1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축제기획단

신수민 | 2022 강북마을기자단

수유1동에 가면 동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축제기획단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 9월, '청소년공간 모락'에서 강북구 마을공동체 '수유1동 축제기획단' 김영선 님을 만나 취재했다.

신수민 '수유1동 축제기획단'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김영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시작된 모임인데요, 수유1동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 해의 수유1동 동네축제를 기획해보고 실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민 수유1동 축제기획단은 어떤 축제들을 진행하셨나요?

김영선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진행했어요. 수유1동에 있는 공방이나 놀이공간에서 줌을 통해 모였구요, 주민들과 함께 업서에 하고 싶었던 일을 쓰기도 하고 '도전 골든벨' 형식을 빌려 39개 팀이 모여 퀴즈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6월 3일에는 '빨래골 수다 축제'라는 제목으로 동네에서 연극과 풍물을 하시는 '빨래골 유랑단'과 수유1동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두루두루 배움터' 분들과 함께 상품을 걸고 고무신 던지기도 했습니다.

신수민 수유1동 축제기획단으로 활동하길 잘했다는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까요?

김영선 활동을 하며 다른 보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기획하고 진행하는게 힘은 들지만, 끝나고 나서 다들 만족하고 재밌다고 말씀해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신수민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유1동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을것 같은데요, 수유1동만의 특징이 있나요?

김영선 저희 수유1동 축제기획단만 봐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가장 특색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민들 또한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는 것, 이 '자발성'이 수유1동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수민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세대별 주민 연극활동을 통한 마을문화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활동이 궁금해요.

김영선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팀을 나눠 연극을 진행하고 연극회를 진행하는데요. 어린이 팀의 경우는 유현초에서, 청소년 팀의 경우는 수유1동 청소년 공간 모락에서 진행하는 중입니다. 성인 팀의 경우는 아직까지 시작하진 않았고, 대상에 대해서 아직 고민 중입니다. 각 팀마다 공연 내용이 다른데요,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들이 직접 연극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공연합니다. 공연은 11월 5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연극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수민 앞으로 바라는 '수유1동 축제기획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김영선 주민들이 스스로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자발적 운영이 가능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욱 발전하면 다른 구에서도 축제 아이디어와 기획과 관련해서 불러주실 정도의 단체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한 10월 축제의 계절, 수유1동 축제기획단의 축제로 강북구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란다.



마을문제 해결 - 제안형

1 강북기행

강북구 기후위기대응 실천행동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강북구	2021년 '강북기행'이 민간거버넌스협의회 회의에서 기후위기 필요성을 공감한 15개 단체와 주민 모임으로 시작되어 1년 간 기후위기 주민실천 행동을 펼쳐왔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일회성 활동이나 행사로 극복될 수 없음을 확인하면서 민간거버넌스협의회 연대체에서 벗어나 독립 연대체로 기후위기 대응 실천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박수진 홍석화 김세진 정세현

시작과 끝이 같다는 말, 강북기행을 두고 한 말일까요?

김세진 | 2022 마을지원활동가

환경은 유행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실천행동을 강북구의 문화로 만들기 위한 공동행동 연대활동. '강북기행'의 활동 이야기를 '자원순환 카페 환장'에서 나누어 보았다.

김세진 모임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강북기행 강북기행은 강북구 기후 위기 비상행동을 하는 TF팀으로 15개의 단체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안에서 기후문제, 환경 문제와 관련된 실천 캠페인, 정책 제안, 조례를 바꾸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거버넌스 혹은 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있는데, 강북구에서는 이런 모임이 강북기행이 처음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에 민간단체들의 모임이 꾸준히 있다가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던 2021년 2월에 자발적으로 '강북기행'이란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5개의 단체가 함께 하다 보니 정책을 제안하거나,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노하우들이 있어서인지 어렵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세진 그동안 강북기행이 진행한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강북기행 2022년 상반기에는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속한 단체들과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기후시민학교를 참여단체들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우유갑 수거 활동과 아이스팩 수거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카페들에 미래가게(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가게) 인증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준비 중인 축제는 원래는 한 곳에 모여 진행하려다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 지역을 거점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럼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세진 마을에서 환경 관련 활동을 오래 하셨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돌아보니 어떤가요?

강북기행 나한테 수업을 받았던 친구들이나 엄마들이 니가 말한대로 하니 좋더라, 또는 선생님이 말한 게 도움이 되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은 아니지만, 환경을 위한 행동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이라고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이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김세진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강북기행 개인적으로는 기후위기나 환경, 자원 순환 등에 관심이 많고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활동이 이어지면서 차츰 단체들과 연결되고, 규모가 커지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환경문제는 당연히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북기행'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당연히 시작해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참여하기에 힘을 받아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민간이 환경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생겨서 더 힘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세진 지원조례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강북기행 올해 7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통과된 상황입니다.

김세진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강북기행 환경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하기에는 어려운,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참여자들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인식변화가 더 필요한 지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함께 고민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여러 단체가 모여 운영을 하다 보니 각 단체의 일정 맞추기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김세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강북기행 작년에 구청에서 아이스팩 수거함이 만들어졌으나 관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강북기행에서 아이스팩 수거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화 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변화의 근거를 나열하니 개선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개인이 혼자 진행했다면 어려웠을 텐데, 여러 단체가 모여서 하다 보니 각각의 장점을 살려 일을 수월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이래서 연대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올해에는 '강북구 기후위기 비상행동' 깃발을 들고 전국 단위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서로 힘을 받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활동의 의미를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 비상행동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된 점도 보람이기도 합니다.

김세진 마을안에서 강북기행은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강북기행 강북기행이라고 하면 누구나 "아~ 강북기행? 알지. 거기 이런 이런 활동 하는 곳이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강북구 기후위기 대표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강북기행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13개 동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자의 거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면 차츰 '강북기행'이 더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세진 이곳 환장도 강북기행과 함께 기후위기 활동을 하고있는 곳이잖아요. 자원순환 카페 환장의 꿈은 무엇인가요?

강북기행 환장이 100호점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환장으로의 새로운 사업을 꿈꾸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일자리 창출까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세진 강북기행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강북기행 마을공동체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을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마을공동체는 내가 마을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일을 하고,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하고 순환이 되는 것이 마을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진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강북기행 '강북기행'이 다른 구들과 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와 힘이 커지면 좋겠습니다. 실천들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례 제정 같은 활동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환경이 유행이 아니라 문화가 되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마을문제 해결 - 제안형

2 강북행복한소나무

노노(老老)돌봄, 우린 외롭지 않아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삼양동	삼양동은 산동네이면서 취약계층 독거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외부 활동도 쉽지 않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같은 연령대의 노인봉사자들이 찾아가 말벗이 되고 밥상 나눔, 나들이 같은 외부 활동을 안내 합니다. 마을주민들이 서로 돌보는 행복한 삼양동을 이루고자, 노노(老老)돌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혜 정한성 김흥녀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서 나누는 것

이다현 | 2022 강북마을기자단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삼양동은 강북구에서 3번째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행복한 소나무'의 장경혜 대표는 독거노인 취약성과 돌봄의 필요성을 느낀 뒤, 2018년부터 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 특히 '노노(老老)돌봄'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 및 기관에 귀감이 되는 활동이다.

노노돌봄은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활동이다. 독거어르신 발굴과 월 2회 방문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집에만 계시는 독거어르신들이 마을과 소통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독거어르신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간식과 반찬을 나눔하고, 지속적인 안부를 묻는 일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자칫 잘못하면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 돌봄을 지향한다. 즉 돌봄을 받은 사례자가 봉사자로 성장하도록 돕고, 마을 단위의 서로 돌봄 방식으로 호혜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노노돌봄에서 사례자를 돌보고 있는 봉사어르신들, 그 중 한분인 유정자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다현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유정자 안녕하세요. '노노돌봄'에서 노노돌봄미 활동을 하고 있는 80살 유정자입니다. 삼양동에서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 불편한 사람을 돌보며 살고 있어요.

이다현 '행복한 소나무'에서 하시는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유정자 나보다 더 힘이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몸도 불편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죠. 제가 찾아가는 사람이 두 명인데요. 한 분은 여자 분이고, 나머지 한 분은 남자 분이예요. 간식과 반찬을 가져다주고, 아픈 데는 없는지 건강상태도 확인해요.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다현 노노돌봄 활동을 하실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유정자 우리 봉사자들 교육 받으러 갈 때가 어려워요. 제가 무릎이 안 좋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도 나를 기다리는 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나요.

이다현 교육도 받으셔야 하고, 방문도 하셔야 하고. 쉬운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노노돌봄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유정자 장경혜 대표는 평소에 존경하던 선생님이에요. 어느 날 '노노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해 보실래요?'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니다.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 같아서 흔쾌히 수락을 했고,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네요.

이다현 노노돌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순간이 혹시 기억나세요?

유정자 제가 방문하는 분이 있는데, 그 집에 재활용 같은 게 잔뜩 쌓여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물건들이 현관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죠. 겨우 걸어갈 공간만 남겨두고요.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걸 왜 안 치울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조금씩 치우더라고요. 그런 작은 변화의 순간이 보람 있어요.





이다현 재미있었던 일은요?

유정자 다 좋죠. 지난번에는 원목수납장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우리가 방문할 때 드실것들을 좀 만들어 가는데 김치 만드는 것도, 반찬 만드는 것도 재밌어요. 제가 장경혜 선생님한테 참 좋은 사업을 한다고 말했어요. 이곳에서 하는 크고 작은 활동들이 삶에 활력이 되고 즐겁습니다.



이다현 노노돌봄 봉사활동이 어르신들의 노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유정자 처음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보람이 있죠. 막상 해보니 나도 나이가 있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며 사는 활동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다현 앞으로 어떻게 나이 들고 싶으세요?

유정자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게 나이 들고 싶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면 서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나치지 않고 돕고요.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나눔'에 대해 생각해봤다.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서 나눌 수 있다는 봉사자 어르신들의 말씀. 그 건강한 마음들이 모여, 외롭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더욱 결속력 있는 마을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문득 가슴이 뜨거워진다.

마을문제 해결 - 기획형

3 나의 감정일지

내 마음을 들여다 보는 시간, 오프라인 감정일기 모임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강북구	코로나 블루와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를 공감받는 시간인 감정일기 모임을 기획하였습니다. 감정을 인지하고 공감받는 활동을 통해 우울감 해소뿐 아니라 깊은 유대감과 안정감을 가진 단단한 관계가 되어 마을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해랑 이민희 서도희

좋은 관계를 맺고 지속하는 것으로 우리는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반디 | 2022 삼양청년회관 술래

반 디 본인팀과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래 랑 퇴사를 얼마전에 했고, 지금은 창업을 준비하는 와중인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엄청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데, 가장 나 다운 시간이기도 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바쁘면서도 행복하니까요. 누군가가 나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것에 즐거워하는 편입니다. 이 모임도 그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달 저도 퇴사했어요. 아직 준비중일 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정신이 없죠.

반 디 청년렛츠마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래 랑 같이 독서모임하는 지인이 추천해줘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강북구에서는 이웃과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요. 서로 간의 두려움 때문에 서로 친해지기 어려워서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보려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달 저는 사업까지 우리가 직접 하는 모임인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프로그램인줄 알았어요. 여튼, 일하는 소재지가 강북구였고, 여기서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이후에 내가 하려는 것에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반 디 숨가쁜 교육기간이 이어졌어요. 전체적인 소감이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래 랑 숨 가쁘진 않았어요. 교육 프로그램 세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손가락만 얹은 느낌이었어요.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기획도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달 엄청 빠른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의 사업 아이템을 도와주는 듯한 느낌도 있었구요.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래랑 덕에 편하게 사업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반 디 인상적이었던 강의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데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

래 랑 마지막 협업에 대한 강의가 바로 생각나요. 커뮤니티 기반 사업이다보니 협업에 세심해야 했어요. 대학과제도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앞으로 리더십을 펼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교육에서 추천받은 책도 바로 샀습니다.

달 강북구 청년현황에 대해 얘기했던 첫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일할 때만 갔던, 잘 몰랐던 강북구의 특성을 수치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재미있었어요. 표로, 수치로 보여주셨었잖아요, 청년들의 설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반 디 기획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본 적 있나요? 있다면 기획자는 어떤 사람인지, 혹은 기획이란 무엇인지 자신만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래 랑 지금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기쁜 사람들이 기획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일상에서 봐도, 연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데,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획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달 기획자는 트렌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트렌트를 읽으며 니즈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 디 처음 아이디어를 모으고 팀을 구성하면서 좋았던 것이나 아쉬웠던 것이 있을까요?

래 랑 주제별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선택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쉬움은 모든 기획안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의 작성된 기획들을 전부 듣고 결정하면 좋지 않았을까.

달 누군가의 기획을 도와준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분야고, 모임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못 도와준 것 같아요.

반 디 교육과정과 공모사업 심사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래 랑 우리를 디테일하게 봐준 기분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봐주는 것. 진지하게 봐주시는 것. 충분히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업이라는 코멘트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달 미니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3개월 과정인데 매달 모임을 지속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빠듯하고 바쁠 것이라는 코멘트를 해줘서 6주과정으로 바꾸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반 디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기분이나 각오를 공유해주세요.

래 랑 정오에 만나 홍보문을 작성하고 본격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요. 2명이 벌써 신청하셔서 으쓱해요. 감사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달 계획서 쓰고, 협약 사인하는 과정에는 사업에 다가간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홍보를 하고 모임에 참여니가 책임감이 들어요. 감정일기 쓰면서 느낀걸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며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힘든일이 중간중간 있었지만 마음의 정리가 되었거든요.

반 디 걱정은요?

래 랑 반응이 어떨까? 6주 다 나올 수 있을까? 말고는 다 잘될 것 같아요.

달 인원 모집하는게 제일 걱정이었었는데 해결되어 여유가 생겼어요. 니즈가 확실한지 몰랐는데 확인이 된 거죠.

반 디 끝으로, 사업이 종료된 시점 나는, 그리고 우리 마을은 어떤 모습이 되어있을까요?

래 랑 모임의 취지이자 본질이 관계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지속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감을 견어냈으면 좋겠어요.

달 취지가 관계잖아요. 모임에 와서 수유동, 강북구에서 좋은 친구를 얻어가면 좋겠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공동체가 되어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상상합니다.



마을문제 해결 - 기획형

4 도전해(이불 밖도 안전해)

나만의 캐릭터 애모티콘·굿즈 제작, 나만의 콘텐츠 만들어 표현하기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강북구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이 점점 심화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나만의 콘텐츠를 발견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알리는 활동들을 통해 청년의 자기개발을 돕고 사회적 고립감이나 심리적 압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오시열 이인호 김희선

강북구에서 청년은 무엇을 하고 놀 수 있을까?

반디 | 2022 삼양청년회관 솔래



반 디 본인팀과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설 집에서 놀고 있는 팀장 설입니다.

나 무 도전해 팀의 자연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이 노 귀여움을 맡은 이노입니다.

반 디 청년렛츠마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설 강북구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5개월차. 주변에 연배가 높은 사람이 많은데, 청년의 활동이 궁금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참여했어요. 강북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고 싶기도 하고,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나 무 저는 29년, 오래 거주했는데, 요즘 관심사가 청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예요. 항상 다른 구에서만 활동하다가 삼양청년회관 재개관 후 활동이 이어지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노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열심히 보면서 재미있는 게 있나, 해서 보다가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지원했어요. 강북 산 지는 4년차 인데, 지역을 잘 몰라서 지역을 알고 싶기도 했구요.

반 디 숨가쁜 교육기간이 이어졌어요. 전체적인 소감이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설 좋았는데 짧았어요.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여건 상 모든 사람이 참여하느라 7시에 시작했지만 더 길고 회차가 많았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드니까 이런 과정이 좀더 길었다면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 무 삼양청년회관을 통해 참여하게 되었어요. 강북구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 놀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방향을 알아가는 것 같아 좋았고, 다양한 청년을 만나서 비슷한 고민을 공유했던 것도 좋았구요. 교육기간은 짧아서 아쉬웠고,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숙의과정이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노 교육기간이 짧았어요. 3월부터 시작해 11월에 결과물이 나오면 좋았을 것 같아요. 회사다니며 시간이 한정적이긴 했지만 재미있게 배우는 것도 있어서 좋았어요.

반 디 인상적이었던 강의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데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

설 대부분 좋았지만, '기획'과 '협업'에 대한 강의를 좋았어요. 기획교육을 통해 마을사업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협업교육은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협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법론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나 무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표님들이 강의를 해주셔서 생동감 있었어요. 기획안 작성하기 교육이 인상적이었구요. 실무, 행정을 관심있게 보고, 말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이 노 저도 기획에 대한 교육이요. 기술적인 부분 보다도 '빠단추 스프' 비유를 통해 마을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감명 깊었어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와닿았어요.

반 디 처음 아이디어를 모으고 팀을 구성하면서 좋았던 것이나 아쉬웠던 것이 있을까요?

설 아이디어를 안 들고 와도 된다는 것이 부담없어 좋았어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디벨롭 한 것이 좋았는데, 아이디어 경합 과정에서 의견을 더 심도있게 나누며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나 무 설과 비슷해요. 아이디어를 급작스럽게 생각하고 적어서 경쟁했는데, 충분히 생각하고 공유해서 정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노 전체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 갑작스럽게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전환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진행했기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해요.

반 디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게 된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혔어요. 생각을 서류로 옮기는 것이 조금 어눌해서 몇 번 수정했던게 기억 나네요.

나 무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었고, 주도적으로 말았던 설이 많은 고생을 했죠. 멘토가 있어서 도와주었으면 좋았겠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노 머릿속의 말들을 옮기는 것이 어려웠는데, 기획서를 쓰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반 디 교육 및 심사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말과 사업이 시작되면서 느끼는 기분이나 각오를 공유해주세요.

설 '헤밍웨이가 한 말 -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라는 말이요. 기획 교육해주신 루타가 한 말인데 기억에 남아요.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분이 들어요. 고맙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돼요. 고마운 것은 목표한 인원을 채워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이고, 부담되는 건,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가야 하는 점 이죠.

이 노 잘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일단 와서 함께 한다는 것이 재미있고 좋아요. 좋은 팀이라 그런 것 같아요.

나 무 사람들이 집중해서 빠져있는 모습을 보니 좋았어요. 집에서 남은 것들을 하는데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재미있어서 좋았습니다.

반 디 끝으로 사업이 종료된 시점, 나는, 그리고 우리마을은 어떤 모습이 되어있을까요?

설 흥분하면서 좋을듯해요. 마을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한 것들 한 줄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나 무 특별히 특이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끝나고 나면 성취감이 들고 마음에 여운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변화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 노 나무와 비슷한 생각이예요. 참여한 10명의 만족이 마을의 변화는 아니지만, 그 분들의 변화가 모여 점점 커나가는 변화가 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마을문제 해결 - 기획형

5 해피소드(청년레츠)

삼양동 벤치 디자인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사업지기
삼양동	마을 생활에 관심있는 청년과 마을 변화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삼양동의 작은 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삼양동이라는 지명의 유래처럼 '삼양동이 햇빛을 즐기는 여유가 있는 마을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햇빛을 즐길 수 있는 디자인의 벤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함께 모아 만든 '벤치'를 중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마을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즐거운 순간들을 모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김소희 김송연 정유경

햇빛 즐기는 여유가 있는 도시를 그린다.

반디 | 2022 삼양청년회관 솔래

반 디 본인 팀과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덕 구 졸업 후 이것저것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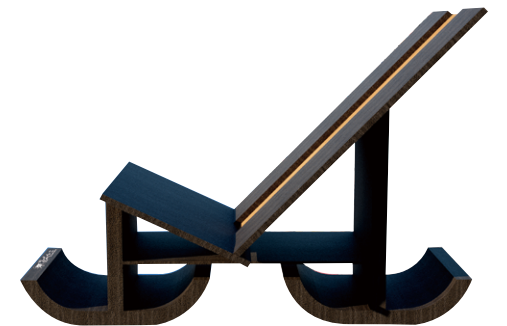
송 니 졸업 후 취업준비 하는 취준생입니다.

반 디 청년레츠마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덕 구 도시기획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제 활동반경이 좁아지면서 동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못 보던 걸 보는 계기가 되었죠. 동네 미술관이나 도서관도 찾아가게 되구요.

송 니 기획자에 대한 역할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가까운 우리 동네에서 참여해보고 싶었어요.

반 디 숨겨진 교육기간이 이어졌어요. 전체적인 소감이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덕 구 시간이 모자라단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팀이 되었을 때, 교육기간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되어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했죠. 계획서도 처음 보는 양식이라 확신이 없었어요. 수정할 것도 많았죠.

송 니 기획서 작성을 해 본적이 없는데, 기획서 작성교육을 듣게 되서 도움이 되었지만, 기획서 작성은 어려웠어요.

반 디 인상적이었던 강의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던지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

덕 구 강북구 청년 현황에 대한 교육이요. 통계적으로 풀어냈는데, 저와 일치하는 부분이 비슷했어요. 통계적으로 다수에 속한 청년의 모습과 제가 많이 일치했어요.

송 니 '협업'에 대한 강의요. 협업이란 게, 모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 잘 들어주면 되는거 아닌가, 했는데 협업도 공부야 필요한 부분이구나 싶었습니다. 피드백이나 조언을 해 줄 때도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도 덜 상하고 전하고자 하는 부분을 확실히 전할 수 있다는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반 디 처음 아이디어를 모으고 팀을 구성하면서 좋았던 것이나 아쉬웠던 것이 있을까요?

덕 구 첫 5주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설레고 신났지만, 여러 가지 주제로 골고루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쉬움이 있었어요. 생각을 구체화하는 시간이 더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송 니 저도요. 5주라는 시간동안 모이는 분들과만 대화를 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못한 게 아쉽네요. 처음에 좀더 여유롭게 진행해서 참여자 간 라포를 형성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 디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게 된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덕 구 다른 팀보다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쓰면서 헛갈리는 지점도 있었구요. 쓰다 보니 남에게 좋게 보이려 쓰는건지, 내가 좋아해서 쓰는건지 좀 헛갈리기도 했죠. 지금 사람들에게 '해와 관련한 에피소드' 드로잉을 받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잘 완성하게 된 것 같아요.



송 니 시간은 짧고, 기획안을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하고자 하는 말들을 문서화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어요.

반 디 교육과정, 심사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덕 구 달이 소감을 말할 때 '아쉬움과 속상함을 바로 잊어버리는데, 일기로 써봐서 좋았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나에게 없는 모습이거든요. 기대했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송 니 '어렵게 생각 말고 하고 싶은거 해라' 라는 말이요. 보조금 사업이라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말이었어요.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죠.

반 디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기분이나 각오를 공유해주세요.

덕 구 너무 재미있어요. 드로잉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과정이 좋아요. 새로운 형태의 소통을 시도하고 진행해보는 거 같아요.

송 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 좋아요. 다음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구요.

반 디 끝으로 사업이 종료된 시점, 나는, 그리고 우리 마을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덕 구 우리 마을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일광욕하는 모습, 저도 여기에 참여해 일광욕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저희집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네가 되면 좋겠어요. 동네 변화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마을 주민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죠.

송 니 서로가 일상적인 소통이 되는 마을을 기대하고 있어요.



마을지원 활동가

2022 마을지원 활동가

박미나, 박영진,곽선희, 김유진, 김세진, 정은영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강북구	마을지원활동가는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살이를 지원하고 연결하여 실제적인 활동을 이끄는 현장 활동가입니다. 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의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사업 유형별 맞춤 컨설팅, 사업 운영 실무에 필요한 회계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그 외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마을 자원을 연결하는 등 마을활동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마을지원 활동가



강북 마을기자단

2022 강북 마을기자단

김인제, 김혜신, 김혜화, 박명주, 박지아, 신수민, 오영숙, 우선영, 이다현, 조상은

활동하는 동네	활동내용
강북구	다양한 마을자치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마을자치의 가치 및 활동에 대한 강북구 주민인식확산을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의 교육을 거쳐 8월부터 공모사업 모임, 환경, 사람, 마을축제, 공간 등 다양한 주제의 소재를 발굴하고 기사를 게재해 오고 있습니다. 강북구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한 걸음 더 마을을 들여다 보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북 마을기자단





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2022, 2021)

2022년 마을공동체 활동

• 이웃 만들기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기통찬맘 더하기	육아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명상치료, 요리, 손뜨개) 기부를 통해 소통하며 공동체 형성	삼각산동
꿈링턴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육아를 하고 있는 가족들 모임으로 반려식물 키우기, 농촌체험 등을 통해 소통하며 함께 육아	송중동
발효장만들기	이웃과 함께 전통장을 만들면서 함께 소통하며 전통 발효장을 배우고 알림	삼각산동
변동사랑	이웃과 함께 지역 쓰레기 줍기, 유희공간 정원 가꾸기, 건강체조 활동 등을 하면서 소통하며 건강한 마을 만들기	변동
손꽃이 피는 마을	코다(CODA) 아이들과 코다가 아닌 아이들이 함께 방문체험, 수어교육 등으로 어울리며 소통하고 나와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함	변동
용출비	이웃과 함께 플라스틱을 이용한 생물키우기, 고체 생활용품(삼푸바, 비누바 등)을 만들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활동	미아동
육아빠	육아하는 아빠들간의 모임활동으로 육아강의를 듣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실외 놀이 활동으로 자녀와 유대감을 쌓음	인수동
장미북클럽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 대상으로 독서활동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 배우고 학습하며 성장하는 엄마 모임	번2동
틈새 놀이교육	틈새 돌봄 공백시간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그림활동, 독서활동을 통해 소통과 친목 도모	인수동

• 공동체모임 활성화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동동	이웃과 함께 공기정화식물, 밑반찬을 만들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게 나눔 활동을 하며 소통	송천동
수선화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음식과 놀이를 통해 체험하며, 지역 내 역사와 문화가 있는 지역 방문 및 영화감상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활동	삼각산동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어린이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 환경 관련 강좌 운영, 환경용품 만들기 베품시장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웃과 소통	번1동
핸드 메이드 사랑!	다문화 가정과 이웃 주민들이 EM 비누, 세제 만들기 등 친환경 만들기를 하며 환경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실천	번2동

• 마을특화활동 지원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놀명수명	공간을 거점으로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놀이를 통해 소통하며 지역축제 참여로 주민들의 놀이문화 발전을 활성화함	수유1동
닷별	닷별 작은도서관 공간을 거점으로 환경교육, 신체운동활동, 예술을 주제로한 소통활동하며 지역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하는 공동체 활동	번3동
한누리예술협회	공간을 거점으로 이야기를 통한 공감활동, 춤과 노래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 주민모두가 즐기는 축제마당 등의 활동을 함	인수동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해당사항없음	공간을 거점으로 어린이, 청소년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운영하고 글방, 요리 등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인수동
모두하우징 집수리봉사단	주거 취약자에게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활동과 간단한 집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활동을 함	강북구
소나무협동마을	삼양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문해교실, 마을밥상, 수제청 만들기 등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활동 운영	삼양동
수유1동 축제기획단	“어린이 연극반”, “청소년 뮤지컬반” “청춘플러스” 등 세대별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의 소통의장 마련 활동	수유1동

• 마을문제 해결(제안형)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강북기행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위기강의, 자원순환실천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	강북구
강북행복한소나무	봉사어르신이 독거어르신을 1:1 매칭으로 서로 돌보는 활동, 정기적 방문을 통해 독거어르신의 외로움과 소외감 해결	삼양동

• 마을문제 해결(기획형)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나의 감정일지	강북구청년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일기, 강의, 영화모임 등을 진행, 이를 통한 청년들의 우울감 극복에 도움	강북구
해피소드 (청년레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삼양동의 특성을 반영한 벤치를 디자인하고 설치하여 삼양동의 이미지를 알림	삼양동
도전해 (이불 밖도 안전해)	강북구청년들의 심리적 압박감 및 사회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해 너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개발 활동 진행	강북구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

• 도전 소모임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같이 가치 만보	친구가 필요하고 운동체력도 필요한 이웃들이 공기 좋고 활기찬 강북구에서 정신건강 체력건강 만보건강기를 통해 소통	수유동
다락방(多樂房)	노인맞춤돌봄 수행 인력 생활지원사들의 모임으로 직장 동료와 함께 손뜨개를 배우고, 작품을 만들어 친목도모를 하고, 수세미를 완성하여 주민에게 나눔	번3동
장미마을 반사회	같은 빌라, 동네 주민들과의 모임으로 옥상 텃밭, 도서 교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모임	송중동
코탈맘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심리건강을 위해 가족공예와 시 낭독을 통해 서로 보듬어 주고 위로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모임	수유동

· 이웃 만들기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건강으로 소통하는 미삼	오패산에서 주민건강을 위한 체력단련과 인문학 강좌를 통해 이웃 소통 계기 마련	미아동
꿈사모	산책로와 느티나무 쉼터를 아름답게 가꾸는 과정에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사람 사는 향기가 나는 동네를 만들	송중동
나길 주민들	오현로25나길을 중심으로 낙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 집 창틀과 계단을 꽃으로 꾸미고 과정을 나누며 이웃관계 형성 및 동네 경관 개선	번2동
너랑 나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빗기를 통해 이웃과 환경에 대한 관심 도모	수유3동
동동모임	계절에 맞는 수제청을 만들어 독거노인과 이웃주민에게 전달	송천동
디어마이프렌드	강북구 터무니없는 희망아지트에 입주한 문화예술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의 모임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동네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삼양동
마미담	독서를 통해 관계를 맺고 마을의 변화를 사진으로 기록하며 마을의 이야기 담기	우이동
모여라 공동산	20·30대들이 산책을 통해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챙기는 이웃만들기	인수동
발효사랑	발효종초와 발효먹거리 만들기를 통해 발효지식을 공유하고 이웃 관심 도모	수유2동
밥 사랑	건강을 매개로 한 다양한 모임을 통하여 이웃과 관계 만들기	삼각산동
사이좋은 텃밭	빌라 내 정원을 유기농 텃밭으로 가꾸는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유대 맺기	인수동
삼동이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마을을 활영해 마을지도를 만들고 사진전을 열어 마을 관심 환기	번3동
세대아우르기	동네 이웃과 함께 선배주민에게 고추장 만들기를 배우고 된장 만들기를 배우면서 이웃 간 소통을 증진하고 세대격차를 줄이는 모임	번3동
세수대야	농여성 간 교류를 위해 다양한 만들기와 나들이를 통해정보 공유 및 교류의 폭 확대	번1동
알콩달콩	장 담그는 법을 알려주고 매실장아찌 반찬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우이동
오뎅한 이웃	빌라 밀집 지역인 수유2동을 중심으로 동네 청소를 통해 지역환경을 지키고, 빵 만들기를 통해 환경 캠페인에 사용하며 동네 소속감 증진 활동	수유2동
운동하소서	운동을 매개로 이웃과 교감하여 몸과 정신건강 찾기	삼양동
은행빌라주민회	빌라(17세대)를 중심으로 소통을 위한 화단 만들기 및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통한 주민 소통, 관계맺기 활동	삼양동
포레스트의 꿈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중심으로 각자의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아이 옷 제작 판매, 공예활동을 통해 지역커뮤니티에 기여하고자 함	수유2동
핸드메이드 사랑!	EM을 활용한 자연환경 개선과 여러 DIY작업을 통해 함께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번2동
행복하게 놀아요	코로나로 집에만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전공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놀이를 하고, 엄마들 간 소통하는 모임	송중동

· 공동체모임 활성화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강북구 청년연극단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모임. 연극에 관심있는 강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낭독극 제작	강북구
모두하우징	집수리봉사모임단체로, 집수리 아카데미를 통한 수리기술 강좌 운영 및 수강생들의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활동	강북구
몸지Club	함께 걷기, 체조 등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며, 동시에 에너지 캠페인과 쓰레기 줍기를 통한 환경인식개선 활동	번3동
미인도	골목 심층 인터뷰로 미아동 세대 간 소통 모임 활동, 청년들의 지역활동 활성화 및 주민들의 네트워크 활동 활성화에 기여	미아동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手.ㅅ.美 (수세미)	수세미를 실제 키워보고 친환경 수세미, 세정바를 만들며 이웃소통을 하고, 미세플라스틱, 화학세제의 위험을 공부하며 환경에 대해 배움	수유2동
숲놀이 연구모임	주민을 대상으로 숲에서 할수 있는 활동과 강좌를 통해 숲놀이에 대해 배우는 활동	번2동
엄마가 쏘아올린 공연	연극 등 공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을 기르고 이웃과의 소통의 장 마련	미아동
책끼고 도란도란	빌라 내 정원을 유기농 텃밭으로 가꾸는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유대 맺기	강북구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어린이와 함께 하는 활동, 환경과 관련된 강좌 운영과 환경용품 만들기, 베품시장을 통한 재활용 독려 활동 등 운영	번1동
함께밥	배달, 인스턴트로 대체되고 있는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활동	우이동
햇빛마을 주민협의체	지역 돌봄사례 탐방 등 햇빛마을주민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주거 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 생활지원을 연계하는 활동을 하는 모임	삼양동

· 공동체공간 활성화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놀멍쉬멍	놀멍쉬멍 공간을 사랑방으로 운영하며 이웃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놀이하며 소통하는 활동	수유1동
시장문화활력소 다락방	시장 내 공간에서 어린이와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어린이 풀물단, 목공교실, 바느질 교실, 요리교실, 체조 등의 활동을 통해 소통 및 어린이 돌봄 활동	수유1동
이음줄진흥협회	이음줄 공간에서 중년,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 택견, 동요 율동 배우기, 고고장구, 노래교실 운영 등 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의 장 마련	수유3동
한누리예술협회	공간을 거점으로 책 둘러보기, 공간 아나바다, 연극 등 전문강사 강좌, 각자의 재능 공유 공간으로 활용	인수동

· 골목 만들기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능안골주민모임	능안골 골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이웃과의 소통과 골목의 문제점 해결 활동, 골목축제 활동	인수동
두꿈팩토리	골목 커뮤니티 결성을 위한 모임으로 양말공장을 연계한 양말목 공예 활동, 생산품을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미아동
두리하나	번2동의 문제가 있던 골목 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그 골목을 활용하여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는 골목만들기 활동	번2동
삼·이·사	노후된 주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홀몸노인, 1인 중장년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 골목 쓰레기 문제 개선 등 활동	삼양동

· 지역사회이제특화

모임명	활동내용	활동지역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코로나 상황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소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터넷 강의, 수어놀이터 탐방 등의 활동으로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인수동
협동조합 라떼는 집밥	재건축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마을을 기록·전시를 통해 주민과의 공감, 유대감 형성	인수동
행복한 소나무	봉사어르신과 독거어르신을 11 매칭하여 서로 '노노돌봄'을 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노년의 우울함을 해소	삼양동



강북마을자치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 49, 1층

발 행 일 | 2022년 12월

이 메 일 | gbmaja@naver.com

홈페이지 | www.gbmaja.org

전 화 | 02-994-8312

팩 스 | 02-994-8313

디자인·제작 | 디자인파인